
第5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9月11日(水)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

議事日程

1. 現況報告(서울市立大學校)
 2. 現況報告(教育廳)
-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서울市立大學校) ... 1面
 2. 現況報告(教育廳) ... 46面
-

(10時 15分 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連日 바쁘신데 나오셔서 委員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文化教育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1. 現況報告(서울市立大學校)

(10時 16分)

○委員長 權會榮; 우선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서울市立大學校 業務 現況報告를 먼저 들은 뒤에 委員님 여러분께서는 차례 차례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棒 3打)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먼저 市立大學校總長님께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잠깐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既이 만나 뵈었던 우리 市立大學校總長님과 職員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諒解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보다 진지하고 生産的인 그러한 常任委員會 活動을 위해서 우리가 市立六學校를 訪問했었을 때에 1次 業務報告를 들었습니다. 原則上 또 듣고 해야 되지만 生産的인 議會活動을 위해서 일단은 總長님의 간략한 人事를 듣고 企劃室長님의 主要 現況報告에 대한 概略的인 얘기만 듣고 곧바로 質疑하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議事進行을 發言합니다. 委員長님 그렇게 하시죠.

○市立大學校總長 申弘; 尊敬하는 權會榮 文化教育分科委員會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第50回 臨時會를 契機로 市議員 여러분 특히 文化教育分科委員 여러분들의 눈부신 議政活動에 만감의 敬意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직접 參席해서 傾聽했습니다마는 지난 6日에 있었던 金相復 委員님, 李載震 委員님, 孫允準 委員님의 本會議 質疑는 저희들에게 많은 感銘을 주는 훌륭한 質問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常任委員會에서도 委員 여러분들의 市立大學校에 대한 叱責과 建議와 또 疑問點이 있으시면 물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의 建議나 忠告나 叱責은 앞으로 저희 市立大學校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기꺼이 實踐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이하 委員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울市立大學校는 오늘날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市立大學校로서의 새로운 位相을 定立해야 될 중요한 時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市立大學校로서 市民을 위한 또 市民에 의한 大學運營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分野에서 改善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손색없고 均衡잡힌 綜合大學으로서의 體制構築과 더불어 서울市民의 醫療福祉向上을 위한 醫科大學 新設이라든지 交通, 住宅, 環境 등 都市 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增員, 增科라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市에 依存하고 있는 財政自立度を 改善하는 문제라든지 市民의 平生教育을 담당할 市民生活教育院의 설립, 또 서울市民 자녀에 대한 特典을 附與하는 方案의 檢討라든지 할 일들이 너무나 산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委員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指導와 協助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가지씩 저희들이 착실히 推進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會議에서 市 當局者の 答辯을 통해서 이미 委員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市에서는 저희 大學과 같이 서울市立大學校長期發展計劃을 作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委員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諮問을 저희들은 기꺼이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高見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審議過程에서 反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외람되나마 長期發展計劃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基礎가 되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그것은 時代의 추세에 걸 맞는 大學運營의 自律性 保障과 支援의 擴大

이것이 역시 基礎가 되어야 하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人口 1,000萬이 넘는 世界 5大 都市 中の 하나인 서울에 世界的으로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水準높은 서울市立 大學校의 建設을 위해서 다시 한 번 委員長님 이하 委員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指導鞭撻과 協助를 감히 仰望해 마지않습니다.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고 委員님들의 質疑뒤에 다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總長님의 業務報告에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局長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企劃室長님, 概略的인 얘기 있으면 간단히 좀 해 주세요.

○市立大學企劃室長 安斗淳; 市立大學校 企劃室長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學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시는 여러 委員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 金相復 幹事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業務報告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當面 懸案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報告)

현황보고(서울시립대학교)

(뒤에 실음)

.....

저희들 當面 懸案은 크게 네 가지로 集約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懸案中の 하나가 역시 저희學校의 增員, 增科問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學校는 1987年度에 綜合大學으로 昇格은 되었습니다만 87年 1,080名의 入學定員을 가지고 시작한 이래로 아직 한명도 增員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入學定員이 적은 綜合大學으로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學校나 또 서울市에서 努力을 안했다기 보다는 首都圈整備計劃法이라는 制約的인 法이 저희學校에 適用이 그대로 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今年度에는 270名의 增員과 增科를 지금 申請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教育部에서 檢討段階에 있다는 연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學校에서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마는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문제는 저희 市立大學校 醫科大學 設置問題가 되겠습니다.

이미 本會議에서도 質疑가 있으셨습시다마는 이것은 저희學校만의 입장이 아니고 서울市的 입장 또 서울市에 지금 散在해 있는 6個의 市立病院, 그리고 22個의 保健所하고 전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市立病院은 지금 永登浦 市立病院은 서울大學校에다가 委託經營을 하고 있고 江南病院만은 地方公社로 經營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市가 전부 直營을 하고 있는데 委託經營을 하는 것은 이미 市立病院의 機能을 떠나서 완전히 高級患者들을 위한 그러니까 서울 庶民福祉를 위한 次元을 떠나서 서울大學病院이 가지고 있는 高級患者들을 위한 病院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을 했고 江南病院 역시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나머지 市立

病院들은 極貧者들이나 가는 病院이다 그래가지고 中産層이 거의 기피를 하고 있어서 어느 病院할 것 없이 지금 막대한 赤字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市立病院의 입장에서든 돌과구가 뭐냐? 결국은 大學病院으로 轉換을 할 수밖에 없다 大學病院으로 전환을 하면 우선 患者들의 수가 많아지고 酬價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거기에 勤務하는 醫療陣들이 자체적인 研究發展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醫療陣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學校하고도 누차 協議를 해서 제발 市立大學에서 醫科大學을 設置해 가지고 우리들을 大學病院으로 흡수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88年 이래로 계속해서 서울市長님의 方針을 받아서 教育部에 醫科大學 設置許可를 申請해 놓은 바 있고 금년에도 지금 일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難關이 있어서 지금 樂觀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울市立大學학교하고 서울市の 關係定立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저희 學校가 歷史는 비록 70年이 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市立大學이 農業學校에서 農業專門大學으로 그리고 産業大學으로 그리고 또 市立大學으로 그 다음에 綜合大學으로 이런 발전과정,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市와의 관계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市하고 저희 學校가 공동으로 市立大學發展委員會라는 것을 이미 構成을 해 가지고 지금 稼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中長期 發展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하고 저희 學校가 역시 協議중에 있으며 아마 數週내로 역시 中長期發展委員會라는 것을 構成을 해서 中長期 發展計劃을 立案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學生들의 宿願事業중의 하나인데 寄宿舍를 만들어 달라 하는 이 요구가 數年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가지 事情상 아직까지도 當面課題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學校의 實驗機資材 擴充問題인데 저희 學校는 차차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마는 實驗機資材 確保率이 19.9%에 머물고 있어서 다른 國立大學하고 비교 할때에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또 當面課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總長님께서도 報告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 學校의 문제 중의 하나가 財政自立도가 11.8%로써 매우 낮은 水準이다 이런 지적이 지난 本會議에서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두 가지 次元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國立大學, 저희는, 서울시가 運營하는 公立大學입니다. 마는 國立大學의 財政自立도 수준이 저희들보다 훨씬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12~14% 이 水準에 있기 때문에 市立大學만 특히 낮다 이렇게 認識을 하시는 것 보다는 教育事業이라는 것은 결국은 國·公立에서는 財政自立도가 중요한 이슈가 될 事案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諒解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저희 學校에서도 財政自立도를 提高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人員을 줄이고 또 教授充

員도 수시로 서울시하고 協議下에 不要不及한 充員은 自制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人事管理의 合理化를 통해 가지고 人件費, 특히 저희 운영全體會議에서 歲出豫算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人件費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말 그대로 市立大學이기 때문에 經營收支面에 신경을 쓸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市立大學이기 때문에 市民을 위한 大學으로써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業務報告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미 88올림픽을 위해서 450餘名 이상의 서울시 公務員의 言語教育을 實施를 했고 4,5年前 부터 서울시민들을 위한 원에 강좌를 실시해서 금년 여름까지 3,000餘名 이상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市民生活 敎育院을 設立을 해서 市民들에게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當面現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市立大學校의 學生示威의 現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하는 것을 첫째로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卒業生 就業率은 어느 정도 되며 그 就業에 앞으로 就業을 하지 못한 學生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專任敎育 現況 및 今年度 採用計劃을 묻고 싶고요.

네번째로 今年度 市立大學校 歲出豫算 各 明細書를 보면 未登錄 在籍對象者들을 學期當 300名씩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未登錄 除籍 對象者가 學期當 300餘 名에 이른다면 個人的으로나 國家的으로 커다란 損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90年度와 금년 2學期에 登錄을 하지 못해서 除籍된 學生數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그렇게 어렵게 入學한 學生들에게 登錄金이 없어서 除籍을 당하는 學生들에게 獎學金의 受惠의 폭을 늘려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月 9日 崇實大學校 社會教育院이 개발한 勤勞女性教室의 女性勤勞者 132名の 입학식을 갖고 大學教育講座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進學을 하지 못하고 産業戰線에 뛰어들었던 女性 勤勞者들이 못다 배운 한을 풀겠다고 눈물로 支援을 호소했다는 紙上報道를 접하면서 市立大學校가 여유가 있는 계층을 위한 生活園藝 시민강좌도 좋지만은 貧富隔差로 大學教育을 받지 못한 勤勞階層의 勞動者들을 위해서 大學의 문을 열어 平生教育의 場으로 活用해야만 하고 窮極的으로는 서울 市에 거주하는 市民들을 위해서 開放大學의 機能을 遂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市民의 大學으로 開放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 質疑하실 분 말씀하세요.

○金熙健 委員; 金熙健 委員입니다. 우선 저도 大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企劃室長님께서 經營收支보다는 서울 市民을 위한 大學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大學의 財政自立度라고 하는 것이 基本的인 어떤 선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市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와의 協議體를 구성해서 中長期 發展計劃을 수립하신다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서울시의 최근에 大學의 增員, 增科가 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마 그 教育部에서 꽤 오랜 期間 동안 서울시에는 增員, 增科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지로 財政自立度를 확보할 어떤 방법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렇다면 中長期計劃의 그 자체가 기본적인 財政自立을 위한 中長期計劃을 수립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모자란 豫算을 축내서라도 서울市民의 어떤 教育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中長期計劃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여기 人員現況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아마 法人의 人員定員에 대한 어떤 規定에 의해서 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教授 148名, 조교 32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人員은 아마 職員으로서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韓民國의 大學중에 教授 人員보다 敎職員 人員이 많은 大學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企劃室長님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의 市立大學이라든가 또는 國立大學이라든가 하는 우리 市民이나 國民을 위한 大學의 運營을 하시는 運營權者라든가 또는 幹部들께서 실지로 私立大學이라든가 國家와 市에 관계없는 별도의 教育機關에서 느끼고 있는 大學教育의 체감

온도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나 하면 教育部長官님께서 실지로 年間 한번 씩 指針을 하달하신 다든가 또는 어느 地域에는 어떻게 해서 大學을 설치하겠다. 이런 中長期 方案이 분명히 있습니다. 國家施策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의 大學 서울시立大學 自體의 어떤 발전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弘益人間 구현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이외에 運營의 지금 現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市立大學의 어떤 특수성 부분에 대한 것을 總長님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로 다른 大學과도 많은 連繫關係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운동권 學生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 輿論에 많이 얘기들이 되다가 요새 東歐圈이나 소련의 民主化 바람 때문에 조금 잠재워지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현재 市立大學내에서 그 운동권 學生으로 파악하고 있는 現況과 운동권 學生들의 운동사항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市立大學 自體의 학원사태와 거기에 관련돼서 拘束된 學生數에 대한 現況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市立大學의 學園事態에 學生들의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에 또 質疑하실 분 말씀하세요.

○李汪烈 委員; 質疑하겠습니다. 李汪烈 委員입니다.

11페이지 優秀敎員 招請 研究活動支援에서 현재 公採의 경우에 6명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이 과연 公採인지 어떤 형식으

로 教授를 採用을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學校가 70年 넘는 입장에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市 委員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먼저도 브리핑하실 때 참석해서 우리가 이 學校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 보자라고 결의까지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런 次元에서 우리가 이 學校가 과연 마케팅 전략에서 지금까지 성공을 해 왔는지 그러면 부단히 노력은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은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入學式과 卒業式場에 大統領 혹은 關係長官, 혹은 市長이 참석을 해서 모든 學生에게, 教授에게 격려와 여러 가지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어차피 서울市民 1,000萬 내지 2,000萬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學校라면 지금 전 세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再教育과 平生教育 次元에서 이 學校도 우리가 보건대는 平生教育院을 지금 梨花女大나 特殊學校에서 特殊教育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次元과 脈絡을 같이 해서 平生教育 특수한 過程을 위해서 낮이든 밤이든 주부든 혹은 남자, 여자든 職場人 이든 계층, 나이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러한 門戶를 開放할 수 있는 平生教育院을 신설함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業務現況의 글자들이 大學校 우리 市立大學院의 位相에 맞게 漢字라는가 이런 것이 틀리지 않아야 될 텐데 간혹 틀려 가지고 조금 뭔가 불안하고 位相的인 면에서 높은 기대에 어긋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意見收檢하는 것도 收劍이 아주 쉬운 것이 틀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 어려울 때 틀리면 아주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意見收斂 자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7페이지에 碩士, 博士課程 판것은 다 맞는데 이때 이 과정은 프로세서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영어로 프로그램은 課程입니다. 일 課자로 써야 되고 여기에는 지날 과 過자를 썼습니다. 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 주시면 학자적인 분위기 지식을 產出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中期計劃에서 綜合大學의 必須學科 증설문제에서 사실 요사이는 統計學의 접근방법에 의한 학문이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市の 경우는 어려운 여러 가지 學科들이 증설돼야 함에 이에 따르는 통계학과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開放化 時代에 부응하기 위해서 中語中文學科도 있는데 露語露文學科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여기에 넣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長期計劃에서 지금 10,000名の 규모를 우리가 7,000名, 8,000名 이상이 되어야 이 學校의 適正規模라 해서 財政自立度도 어느 정도 우리가 他에 依存을 하지 않는 입장이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000名の 規模라 했는데 이 10,000名에 이를 수 있는 豫想年度는, 어느 때를 잡고 계시는지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醫科大學 新設에서 이 醫科大學이 과연 우리가 아까 6個 病院이라든지 또 22個 保健所라든지 여기에 맞출 수 있는 年度別 배출인원하고 적정인원이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이 아마 圖表에 의해서 한눈

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資料要請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李喆鎬 委員; 李喆鎬 委員입니다. 최근 뉴스초점이 되고 있는 入試不正과 關聯해서 市立大學에서는 이러한 事例가 지금까지 없었는지 또 92學年度 入試를 앞두고 市立大學校에서는 入試不正 防止를 위한 어떤 對策을 사소한 일까지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기 現況表에도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事務局 業務와 關聯해서 大學運營全般 및 豫算登錄金策定, 職員人事, 歲出豫算, 執行內譯 등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業務報告를 하시는 가운데 첨단 實驗實習 機資材 確報率이 19.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國立大學校보다도 훨씬 수준 이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實驗實習機資材 確報率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가 어디 있고 向後 擴充方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新學期가 되면 이 登錄金 調整關係로 學校와 學生간의 마찰이 매년 再現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市立大學校에서는 登錄金 策定基準이 무엇이고 또한 來年度 登錄金策定展望은 어떠한지 또한 財政自立도가 아까 11.4% 밖에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낮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려 주시고 또 이를 提高시킬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어저께도 사실상 質疑가 너무 많아서 答辯

을 못하고 書面答辯을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委員 여러분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質疑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質疑하실 분 말씀하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總長님께 묻겠습니다. 市立大學校의 특수성상 서울學生과 지방學生간에 差等を 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면 서울市民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서울市立大學은 서울市民의 자제들이 대거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市立大學校의 우수學生을 뽑는데 지방學生을 너무 排除시킬 수 없으니까 지방學生은 20%라든지 30%를 우수한 學生을 入學을 시키고 나머지는 서울 市民의 자제들을 入學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總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시간강사 자격 및 委囑節次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현재 大學校에서 支給하고 있는 獎學金 支給現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몇 명이 受惠를 받으며 全體學生의 몇 %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서울特別市長이 주는 獎學金에 대해서 어떠한 基準과 根據로 支給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受惠對象者는 몇 명이나 되며 또 서울市民이 낸 稅金으로 運營하는 大學이라서 혹시 서울市民의 자녀에게는 特惠를 더 줄 수 없는지 하는 방법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實驗 寶習機資材 保有現況을 아까 企劃室長님으로부터 報告를 받았습시다마는 현재 19%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의 확보계획은 몇 년도에 몇 차년계획에 의

해서 하나의 金額으로써 算出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問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李鍾學 委員; 李鍾學 委員입니다. 本 委員은 市立大學이 좋은 일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서울市民에게 널리 좀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첫째 質問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市立大學이 市와 市民을 위하여 기여한 實績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묻는 취지는 教育委員으로서 우리 市立大學을 PR하기 위한 하나의 問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市와 市民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첫째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市費를 받아서 獎學生으로서 在學을 했던 學生이 서울市에 特採를 한 現況과 그 다음 현재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또 失職은 혹시 다른 데로 移職은 한 學生은 없느냐, 그 狀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自立度가 12.5%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야기 중에서는 短期中長期 發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쫓아 오는가하면 豫算이 쫓아옵니다. 물론 우리 市立大學이 많은 學生을 뽑아가지고 큰 大學이 되는 데는 아무도 서울市民으로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밝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增科를 하고 增員을 하고 醫科大學을 新設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서울市에서 負擔을 해야 되는 액수는 과연 얼마가 된다 施設投資費는 얼마가 들것이다 이 損益分岐點을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市立大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많은 教授님이나 企劃室長님을 비롯해서 과연 中長期, 中長期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意味하는 것 이냐 學生숫자만 많이 늘리겠다는 것 이냐 물론 숫자가 많아지면 아마 中長期發展에 어느 목표는 도달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隨伴되는 현재 自立度가 12.5%에서 市 負擔額數는 과연 얼마이고 投資費는 얼마가 되느냐, 이 抽象的인 것이겠지만 계획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腹案이 계시면 분명히 이것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敷衍說明인데 금년도 運動圈 學生들이 데모를 한 횟수와 參加學生數, 아마 金熙健 委員님께서 質問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運動圈 學生에 대한 데모횟수 참가學生 숫자만 對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問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質問이 안 계시면 答辯順序로 하겠습니다. 그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質問이 저희들이 다 끝났다면 아무래도 答辯이 신속히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의상 한 10分정도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10分間 停會하기를 動意하는데.....

(「贊成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答辯을 위해 한 20分 정도를 答辯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0時 57分 會議中止)

(11時 21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계속해서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總長님께서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立大總長 申弘; 委員님들의 예리하신 質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충분한 答辯을 드렸는지 너무 저희 大學을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좋은 質問을 해 주셔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선 제가 答辯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올리고 저희 大學의 補職教授 그리고 事務局長이 자세한 것은 부연해서 答辯 올리는 것으로 하는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副議長님께서 質問 말씀계셨던 崇實大學校와 勤勞女性講座하고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또 저도 崇實大學의 프로그램을 보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崇實大學에서 개발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企劃室長님께서 報告 말씀드릴 적에 저희 大學에서 약 3,000名 가량의 원예강좌를 그 동안에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시다마는 그러한 그 중산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並行해서 勤勞靑少年이라든지 또 勤勞女性이라든지 하는 社會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教育機會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運營하려고 하는 市民生活教育院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熙健 委員님께서 아주 좋으신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려운 質問을 해 주셨습시다마는 우리나라의 教育政策으로써의 大學의 전망이라 할지 長期計劃하고 서울市立大學校의 長期展望이, 中長期 展望이,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 서울市立大學校도

역시 職業教育을 하는 大學이라든가 稅務大學이나 警察大學과 같은 특수한 大學이 아니고 委員님들 아시는 것처럼 綜合大學校이기 때문에 綜合大學校로서의 그 基礎랄지 體制를 構築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基調를 가지고 學生들을 教育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金委員님 지적하신 것처럼 教育部의 大學政策에 靚를 맞추어 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市立大學校는 綜合大學校가 된 것이 87年입니다. 그리고 83年부터 首都圈 人口抑制政策때문에 채 綜合大學으로써의 體制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增員, 增科관계가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綜合大學이면서도 마치 單科大學처럼 또 지난번에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基礎科目이 없으면서 應用科目이 있고 그런 불균형한 상태에 현실적으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가 가능한 한 首都圈 특히 서울地域에는 일체인구집중 억제를 위해서 增員, 增科를 안 해준다.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綜合大學으로써의 기본 틀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國家 全體的인 施策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점에서는 서울 市立大學도 서울特別市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 볼 때는 하나의 地方大學에 해당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委員님들이 積極的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教育部에 이러한 사정을 계속 간청을 해 가지고 綜合大學校으로써의 構造, 基本的인 構造를 갖추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 또 市立大學이기 때문에 서울市에서도 特化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綜合大學만으로써의 機能에만 自足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 번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市立大學으로써

市民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까 李副議長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平生教育의 場을 提供한다든지 醫科大學을 新設해서 醫療施惠를 넓힌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積極的으로 並行해서 推進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울市하고 지금 樹立中에 있는 中長期計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委員님들의 積極的인 指導鞭撻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李汪烈 委員님께서 서울市立大學校의 位相 再考와 관련해서 마케팅이라 할지 이미지메이킹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大統領이라든가 教育部長官이라든가 市長을 졸업식에 참석시켜 가지고 市立大學校의 면모를 높인다든지 함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인지 서울大學校에는 전에 大統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大統領께서 서울大學校 졸업식에 참석을 안 하시고 또 教育部長官은 참석을 안 하시고 또 教育部長官은 참석을 했었는데 教育部長官도 요즘에는 서울大學校졸업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立大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市長님이 그 동안에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卒業式이 날짜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市長님이 그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면 참석을 못하셨고 해서 지난 1, 2年동안에 참석을 한두 번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來年 2月 卒業式에는 저희가 미리 市長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참석을 하시도록 하고 물론 그때는 市議會 議長님을 비롯해서서 文化教育委員長님을 비롯해서서 여러 委員님들이 다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미리

초청을 하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誤字問題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大學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朴善童 委員님께서 서울, 地方學生 差等 方案에 대해서 좋은 質問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學生이 약 40% 그 다음에 地方學生이 60%입니다. 역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市民이 税金을 내가지고, 運營하는 대부분 80%, 87% 이상을 市 財政에 依存하는 서울 市立大學校가 地方學生들 60%가 있어서 되겠느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研究팀을 구성해서 是正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러운 諒解말씀을 委員님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미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 特別市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位相,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學文的으로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서울市民의 자제만 서울市立大學校에서 敎育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差等を 두는 것은 특히 地方自治制가 실시돼가지고 地方議會 구성이 된 이 마당에 이것을 전혀 度外視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8年度에 한번 試圖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試圖를 해 봤느냐하면 具滋春 市長님때인데 서울市民들만 한번 뽑겠다. 그랬더니 學生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試圖가 일단은 留保가 된 상태로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아주 象徴的으로 差別待遇를 하고 있습

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동점인 學生일 적에 어떤 學生을 入學을 시키느냐 할 때 서울市民을 우선적으로 入學을 시킨다 이런 일이 잘 없습시다마는 간혹 있습니다. 象徵的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檢討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問題點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제 地方學生들 또 地方住民들의 抵抗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現實的인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大學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未洽해서 그렇겠습시다마는 저도 江南의 8學群에 삽니다마는 8學群에 있는 高等學校에 가서 서울시立大學校에 志望하는 學生이 얼마나 되는가 보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改善되겠습시다마는 그럴 적에 學生들의 저항은 없겠느냐 하는 점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市立大學校만의 판단결정만으로써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市議會라든가 市政府라든가 또 사실 教育部 이런 데 하고도 같이 聯關되어서 심사숙고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答辯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質問을 하지 않으셨습시다마는 孫委員님께서 個別的으로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이 기회에 委員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立大學校의 運動팀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運動팀을 가지고 있으면 學校의 弘報라든지 또 學生들의 말하자면 統合的인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高揚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市立大學의 運動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學校當局은 물론이고 學生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大學의 總長選舉를

할 적에 저도 市立大學에 運動팀을 만들겠다는 公約을 했습니
다마는 자칫하면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저어됩니다.
아무렇든지 이전에 趙副議長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
다마는 저희 大學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 팀은
연식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연식정구大學연
맹전에서 단체우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식축구가 있습니다. 미식축구가 있는데 나가면
주로 집니다. 왜냐하면 學校에서 支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學生處長도 積極的으로 애는 쓰습니
다마는 나가서 成績은 별로 좋지 않지만 市立大學校의 미식
축구팀이 그래도 가을시즌 보면 新聞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 委託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選手로
나가면서 저희 大學에서 學生을 敎育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
니다. 하나는 권투, 양궁, 축구, 배구, 육상입니다. 그런데 특
히 축구팀 같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강한 팀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원 같으면 축구팀을 서울시팀이
아니라, 市廳팀이 아니라, 서울시立大學팀으로 내 보낸다면
學校弘報라든가,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移管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은 해 보겠습
니다마는 豫算關係라든지 하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後續 難
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됩니다. 그러나 관심이 계
시고 하니까 이 관계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具體的이고 신랄하신, 예리하신 質問이 委員님들께
서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정도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
는 것이 道理겠다 생각하는 것으로써 우선 말씀을 드렸고 더
具體的인 것 數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李揆穆
敎務處長 또 林相鶴 學生處長 그 다음에 安斗淳 企劃室長 그

다음에 尹佑吉 事務局長이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드릴 차례는 教務處長, 學生處長, 事務局長 그리고 마지막으로 企劃室長이 答辯을 올리겠는데 제가 건방진 諒解말씀을 구하면 이 분들이 教授님들입니다. 그래서 講義는 一家見을 가지고 잘 하시는데 혹시 이런데 訓練이 안 되셔서 서툰 答辯이 될는지 대단히 두렵습니다. 諒解해 주시고 많이 叱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教務處長 李揆穆; 教務處長 李揆穆입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所管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震 委員님과 李汪烈 委員님께서 質問을 해 주신 서울市立大學校의 專任教員現況과 採用計劃 방법에 대해서 答辯말씀드리겠습니다.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한 저희 大學의 法定定員은 216名입니다. 그중에서 教育部 承認人員은 148名이고 專任講師 이상 現員은 현재 142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法定定員에 대한 教員確保率은 約 66%가 되겠고 그러한 %는 他 大學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大學이 零細하기 때문에 時間講師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專任教員 確保를 위해서 約 75% 程度의 專任教員 確保를 위해서 教育部에 지난 年度에 16名の 增員을 要請했으나 大學 學生의 增員, 增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教授의 증가는 불가하다 라는 趣旨에서 返戻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教授要員의 增員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48名이 承認 人員인 것에 대해서 142名이 現員입니다. 지금 말씀 드렸듯이요. 그래서 6名の 缺員이 있습니다. 停年退任하신 분, 他校로 轉出하신 분 또 專攻이 합당치를 않

아서 採用을 못한 분 등등해서 今年에 대략 5-6名이 公開採用을 할 수 있는 人員이 되겠고 이 人員에 대해서는 今年 下半期에 公開採用을 原則으로 해서 採用을 할 생각입니다. 採用節次는 採用分野와 人員이 확정이 되면 國內 일간지에 公開採用公告를 하고 分野別 應募者中에서 學科에서 두 사람의 責任자를 推薦을 받아서 大學人事委員會에서 分野別로 任用豫定者를 선발한 후에 서울特別市長의 최종승인을 얻어서 新規任命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喆鎬 委員님께서 質問을 해 주신 과거에 入試不正 事例가 있었는지와 今年度 入試不正 防止對策에 대해서 答辯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大學에는 故意的인 것이든 偶然的인 것이든 入試에 관한 큰 事故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總長을 委員長으로 한 入試管理委員會에서 約 15名의 委員이 있습니다.

그래서 入試管理에 관한 全般的인 事項을 管掌하고 있으며 모든 入試節次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컴퓨터로 완전히 처리를 하여 수차례에 걸친 檢證過程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偶然的인 사고에 대해서도 事故防止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不正의 소지가 있는 藝能系列 實技考查 管理方案으로는 評價委員을 5人이상으로 하되 그 名單을 考查直前까지 保安을 維持할 豫定이며 實技考查 評價資料는 그림 혹은 녹음 테이프, 音樂 등에 대한 녹음테이프는 卒業式까지 保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90年度 入學學生 豫定者 중에서 未登錄 學生數가 11名이고 今年 入學 未登錄 學生數가 8名인데 이들은 全員 差點順位에 의해서 登錄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他大學의 근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報道되고 있지만 특히 國·公立大學은 故意的인 入試不正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李喆鎬 委員님과 孫馥 委員님께서 質疑를 해 주신 實驗實習機資材 保有現況및 活用實態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大學校는 大學 實驗實習設立基準令에 根據한 保有量은 777種 2,205種으로써 基準 對比 종전에도 報告말씀 드렸듯이 19% 水準입니다. 地方 國立大學 39%, 서울大 51%에 비하면 保有率이 낮은 편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희 大學이 農業大學에서 市立大學으로 改編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5年 정도 밖에 안 됐고 또 최근에 尖端分野 및 몇 學科에 대해서 增科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制御計測科라든지 이런 科의 增科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뒷받침이 되는 財源의 뒷받침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현 시점에서 實驗實習機資材의 不足現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86年서부터 90년까지 약 8億원에 대한 11億 2000萬원을 投入했으며 教育部 5個年計劃에 의거해서 OECF, 말하자면 日本 海外經濟協力基金借款 11億 2,500萬원을 80-90년까지 確保를 해서 현재 80種 150點이 들어 와서 일부 運營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今年를 포함해서 91年서부터 95년까지 教育部 計劃으로 7次 IBRD借款으로써 6億 5,000萬원을 確保해서 購買豫定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大學이 教育部하고 實驗實習機資材 推進過程에서 問題로 봉착되고 있는 것은 다른 國立大學은 國家財政에서 支援을 하는데 市立大學은 市가 있으니까 우리가 빚은 얻어 주겠지만 市에서 갚도록 하는 方案을 講究해라 이렇게 자꾸 要請을 하지만 그것이 아직 저희 大學

으로서 豫算確保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敎務處에서 管掌된 事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學生處長 林相鶴; 學生處長 林相鶴입니다.

李載震 委員님과 李鍾學 委員님께서 물어 주신 서울시立大 學校 學生示威 現況과 앞으로의 전망 또 本 大學의 學生示威에 대한 이슈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주셨는데 서울시立大 學校의 學生示威 實態를 보면 政府鬭爭에 대한 政治性 示威가 89年度에 12회 그 다음에 90年度에 9회, 그 다음에 91年度에 3회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參與學生數도 每年 600名선에서 200名선으로 줄고 있습니다. 學內 問題로 인한 점거 농성은 每年 1회 내지 2회가 있었으며 參與學生은 약 한 300名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나라의 政治, 社會的 文化的 진척에 따라 暴力性 集會와 示威는 그 正當성과 對國民 공감대의 형성에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選舉를 통해서 立證되고 있듯이 社會安定을 바라고 있는 대 다수의 中産層과 中産層에 의해서 운동권 윤리가 설 땅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나 政治, 社會의 向背가 상당한 變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蘇聯과 東歐圈의 沒落으로 인해서 운동권 學生數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市立大學의 學生이슈, 여러 가지 문제로서는 89年度에 12회에 걸쳐서 화염병 투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0年度에는 9회에 걸쳐서 있었고 91年度에는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다음 李載震 委員님께서 물어 주신 卒業生就業率은 어느 정도이며 就業對策은 무엇 인가 저희 大學에서는 每年 900名 정도의 卒業生이 나오고 있습니다.

軍入隊, 大學院 進學 등을 제외한 순수한 就業率은 전국적으로 就業情報紙에 나온 것 보면 전국 平均 就業率이 약 50%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 學校의 就業率은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30%는 自營 및 其他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學校에 就業情報室이 있는데 就業情報室에서도 이 統計를 내고 있습니다.

金熙健 委員님과 李鍾學 委員님께서 물어 주신 서울시立大學의 學生數, 물어 주신 서울시立大學校의 運動圈 學生數는 얼마나 되나 물어 주셨습니다.

서울市立大學校 學生數는 먼저 말씀 드린대로 約 4,000名 정도인데 主要 學生代表組織으로써는 總學生會, 女學生會 4個 單科大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組織構成 中에 運動圈 성향이 높은 학생이 약 한 100名정도 됩니다.

그래서 2.5% 그 중에서 核心幹部 등 주로 運動圈으로서 공부도 안하고 있는 學生들이 약 40名 정도 됩니다. 1% 정도가 되는데 이 學生들이 激烈하게 움직이고 있는 學生입니다.

이런 學生들과 幅넓은 對話를 통해서 學生運動이 激烈化하지 않도록 부단히 啓導하고 있으며 學生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教授 및 職員들이 持續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熙健 委員님이 물어주신 學園事態와 關聯된 拘束學生은 얼마나 되는가 물어주셨는데 學院事態와 關聯 拘束된 學生數는 90年度에 4名, 91年度에 4名 그래서 전부 8名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學生은 執行猶豫로 나왔고 服役後 이미 출석한 學生도 있고, 현재 拘束된 學生은 1名입니다. 현재 裁判에 繫留中에 있습니다. 그 학생은 環境工學科 3學年 유종

육, 保安法으로써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孫馥 委員님께서 서울시立大學校의 獎學金現況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서울市立大學校 獎學金 支給基準은 90年度의 경우 支給總額이 12億 2,800萬원입니다.

受惠者가 3,417名, 學校財政으로 준 것이 11.8%입니다.

그 다음에 總 저희 學校의 獎學金 受惠者가 42.7%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學校에 비교적 獎學金 受惠率이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獎學生 選拔은 어떻게 하느냐, 獎學生 選拔規定에 의하여 각 學科, 學年首席者와 일정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家庭環境이 어려운 學生들을 우선적으로 學校獎學金委員會에서 獎學委員會에서 審議를 거쳐서 選拔해서 주고 있습니다.

○孫馥 委員; 市長 獎學金은.

○學生處長 林相鶴; 市長 獎學金은 현재 1學年에 入學을 했을 때에 각 學科에 首席으로 들어온 學生을 市長 獎學金을 줍니다.

또 29個 學科에 學科 學年別로 首席하는 學生을 1名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16名해서 1년에 236名을 주고 있습니다.

○孫馥 委員;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學生處長 林相鶴; 人文系는 53萬원 그 다음에 自然系는 市長 獎學金은 全額입니다.

○金相復 委員; 登錄金은.....

○學生處長 林相鶴; 全額입니다.

孫馥 委員님 다음은 孫馥 委員님께서 서울시立大學校 市長 獎學金 規定은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는

데 서울特別市長 獎學金은 서울特別市 市長獎學金基準值條例가 있습니다.

그래서 第971號 75年 9月 8日 및 第 2,577號 90年度 2月 10日에 12個 分科에서 매 학기마다 市長 獎學金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事務局長 尹佑吉; 事務局長 尹佑吉입니다.

저희 事務局 業務와 關聯해서 李載震 委員님과 李喆鎬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李喆鎬 委員님께서 事務局 業務와 關聯하여 職員 人事管理 歲出豫算 執行內譯 그 다음에 新學期 登錄金 調整時에 學校와 學生간의 摩擦與否 登錄金 策定基準은 무엇이고 내년도 策定展望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職員 人事管理事項을 말씀드리면 저희 大學校 所屬 職員은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으로서 敎員 및 學生들에게 敎育活動支援을 위한 敎務司書 一般行政 등 諸般學事, 行政遂行하고 있으며 行政, 建築 司書, 電算 등 職種에 3級이 1名, 5級 6名, 6級 以河가 63名인 一般職 70名과 研究職 2名, 醫療職 2名, 別定職 7名, 電氣, 機械, 通信, 運轉, 事務補助職種등 技能職 71名을 합해 總 152名이 職員으로서 勤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充員, 轉補. 補職, 發令의 諸般 人事는 저희 大學校의 學事行政이 서울시 一般行政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으로써 敎育行政이라는 特殊性을 감안해서 大學 自體內에서 業務能力에 따른 그 學校行政의 專門性과 一貫性이 維持되며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業務遂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職員 人事管理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歲入, 歲出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歲入豫算은 저희 大學校에서는 91年度에 一般會計 歲入豫算 總 11億 6,300萬원입니다. 이 내용은 入學金 및 授業料가 10億 9,200萬원으로써 98%를 차지하고 있고 其他 手數料 證紙 收入과 利子, 賃貸收入이 1,600萬원으로써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歲出豫算을 말씀드리면 91年度 一般會計 歲出豫算은 總 97億 3,300萬원으로써 그 內譯別로 執行內容을 보면 給與, 諸 手當 給養費, 福利厚生費 등 人牛費가 54億 4,300萬원으로써 56%를 차지하고 있고, 需用費 및 手數料, 公共料金, 諸稅公 課金 등 基本的인 官署運營費가 9億 8,200萬원으로 10%, 성 적 우수한 學生會라는 獎學會와 敎授研究造成費등 經常費가 12億 9,400萬원으로써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圖書購 入 및 實驗實習機資材 購入 등 施設投資費가 20億 1,400萬원 으로써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新學期 登錄金 調整時에 學校와 學生間의 摩擦이 있 다고 하였고 登錄金 策定基準은 무엇이고 내년도 策定展望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登錄金에 대한 調整內容을 우선 말씀드리면 學生들이 納付한 登錄金은 入學金과 授業料 및 期成會費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로 入學金과 授業料는 學校授業料 및 入學金에 관한 規 則 第2條 規定에 의해서 敎育部에서 決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期成會費는 88學年度까지는 入學金 및 授業料 와 같이 敎育部에서 一括決定을 하여 오다가 大學登錄金 自 律化 方針이 89學年度부터 각 大學이 自律決定토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學生과 學校와의 마찰

이라는 것이 아마 期成會費에 대한 결정시에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정 결정된 入學金과 授業料 및 期成會費는 서울시立大學校 設置節次 第4條 規定에 의해서 學校 設立財團인 서울特別市長의 最終承認을 받아 전하게 되며 이것을 學生들에게 告知하고 受納받고 있습니다.

參考로 91學年度 登錄金 決定內容을 말씀드리면 入學金 및 授業料는 90年度에 비해서 7%를 引上했고 期成會費는 90年度에 비해서 13%를 引上했습니다.

市立大學校의 人文社會系列을 기준으로 했을 때 入學金은 全體 入學金하고 授業料, 期成會費를 합하면 約 59萬 1,000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入學金이 9萬 원, 授業料가 19萬 8,000 원, 期成會費가 38萬 5,500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期成會費 徵收過程을 말씀드리면 期成會費에 대한 登錄決定을 말씀드리면 期成會費의 收入을 財源으로 해서 學父母들이 運營되고 있는 91年度 期成會費歲入 歲出豫算은 約 32億 3,300萬 원입니다. 이것은 財團의 支援만으로써 미치지 못하는 教育活動 支援과 教育活動 改善을 위해서 執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期成會費를 策定할 때는 저희들 學校에서 期成會費 自由決定體系를 만들어 가지고 調整案을 마련해 가지고 小調整委員會에서 學生代表 3名과 學校側 3名이 參席해서 일단 調整委員會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敎務審議委員會라고 해서 委員長 외에 委員長은 總長님이 되겠습니다. 委員長외에 17名으로 構成된 敎務審議委員會에서 이 내용을 審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期成會 理事會 議決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總長 方針 後에 市長決定, 承認決定 이런 체계로 期成會費를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期成會 登錄金 策定시에 學校와 學生摩擦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1學年度 경우 저희 大學校에서는 他 大學과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民主的方法에 의한 學生管理協議로써 큰 마찰 없이 90年度 對備해서 13%를 引上決定한 바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他大學보다는 지금 많습니까? 期成會費가요.

○事務局長 尹佑吉; 他大學보다 많지 않습니다.

○金相復 委員; 작습니까? 엄청나게요.

○事務局長 尹佑吉; 우리가 전부 서울大學校를 基準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92年度 登錄金은 그 登錄金에 대해서 物價上昇率 등을 감안해 가지고 最少限度의 範圍內에서 결정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李載震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未登錄 除籍學生 現況 및 獎學制度 支援計劃에 대해서는 실제 未登錄으로 除籍學生은 90年 1學期에 4名, 90年 2學期에 2名, 91學年度 1學期에 3名 정도입니다.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經濟的인 理由로 未登錄하고 있는 學生은 없으며 대부분 地方學科와 자기 適性과의 問題로써 登錄을 忌避하고 그 결과로 除籍된 그런 전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립니다.

○企劃室長 安斗淳; 企劃室長이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企劃室에서 答辯할 事案은 사실은 일곱 분 委員님들 전부가 質疑하신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李載震 委員님께서 獎學金 關係하고 受惠폭을 확대할 수 있는 方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學生處長님이 答辯을 하셨고 또 朴善童 委員님께서 서울과 地方出身 學生들간의 差等 入學基準을 適用할 수는 없겠

느냐 하는 말씀은 總長님께서 이미 答辯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분이 質疑하신 것을 하나 하나 나열 하기 보다는 많은 부분이 重複이 되기 때문에 綜合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質疑가 財政自立度에 관한 문제이고 왜 財政自立度가 낮고 또 앞으로 提高方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增員, 增科關係 또 市民을 위해서 市立大學이 무엇을 하는가 奉仕方案이 무엇인가 하고 마지막으로 中長期發展計劃에 관해서 많이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부분적인 다른 事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먼저 다른 事案부터 간단하니까 먼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李汪烈 委員께서 統計學科의 必要性을 強調를 해주셨는데 저희 學校에는 이미 電算統計學科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電算하고 統計를 동시에 學生들이 授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露語露文學科의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中長期計劃에는 물론 語文學系列의 擴充方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學校 與件上 그리고 市立大學이라는 特殊性上 特活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綜合大學으로서의 모든 與件을 具備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中長期 發展計劃이 아직 確定이 안 되고 지금 論議段階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中語中文學科나 露語露文學科를 아마 開設할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겠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 學校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開設이 되는 게 아니고 역시 국가 人力受給計劃에 의해서 教育部의 承認이 있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開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添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李汪烈 委員께서 平生教育의 필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總長님께서 일부 答辯을 하셨고 그 외에도 저희 市民生活教育院을 지금 準備段階에 있고 이미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울市民을 위한 奉仕가 뭐가 있었는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 많은 教授들이 서울시 市政諮問會에 直間接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市政에 관련된 많은 論文이나 報告書가 저희 學校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問題는 委員님들의 積極的인 同意와 또 後援이 있으면 저희 學校에서 市政研究院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市議會하고의 關係 그리고 市政發展을 위한 中長期的인 戰略開發 이런 것을 지금 構想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具體的인 事案들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業務報告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오늘 아침에 간략하게 報告를 드렸으니까 다른 事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特殊大學院이 있는데 그 중에서 最高經營者 課程하고 또 政策管理者 課程을 지금 開設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平生教育하고 또 市民을 위한 奉仕하고 連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醫科大學이 앞으로 만약에 開設이 된다 그러면 醫療陣들의 배출에 대한 具體的인 타임스케줄을 提示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承諾이 난다면 92學年度에 35名의 學生들을 募集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名의 學生을 募集을 하면 醫科大學 과정이 6年입니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男學生을 基準으로 할 때 軍隊를 3年을 計算을 해야 됩니다. 중간 대기하는 期間까지 포함하면 3年 그리고 인턴하고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이 5年입니다. 따라서 전부 합하면 14년이

결립니다.

醫師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入學한 이후로 14년이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學校에 설사 醫科大學이 지금 開設이 된다고 해도 2006년에야 醫師가 배출이 됩니다. 2006年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서울市民의 市民所得하고 全體 國民의 國民所得도 큰 격차가 있는데 저희의 대략적인 예측에 의하면 2006년에 가면 서울市民의 1人當 國民所得이 2萬불이 넘습니다. 2萬불이 넘는데 지금 현 인력수급계획에 의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면 2006년에야 저희들이 35名の 醫師陳을 배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만약에 許可가 된다면 每年 그 이후로부터 35名씩의 醫師가 배출이 되겠습니다.

財政自立도가 매우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部分的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國·公立大學의 財政自立도가 一般的으로 12.3% 내지 14.5%라는 것 그것을 諒解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大學校는 아시다시피 3萬 餘名の 學生을 가지고 있습니다. 3萬名の 學生을 가진 學校에서 財政自立도가 14.1%이고 저희는 4,000名입니다. 4,000名을 가진 學校에서 11.4%라고 그러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낮다 이렇게만 보기는 힘들고 역시 또 다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學生數 이외에도 저희 학교가 다른 어느 大學보다도 獎學金支給比率이 높습니다.

總 歲入額을 금액별로 보면 30%가 獎學金으로 支給이 되고 있고 受惠者 學生數로 보면 42.4%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學校는 실질적으로 後發大學입니다. 말이 70年 역사지 저희

學校가 綜合大學으로서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88년부터 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施設投資때문에 이만큼 많은 財政自立 依存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袖手傍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增員이 되면 自立도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人力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教授數는 이미 말씀드렸고 教員確保率이 65% 내외입니다마는 따라서 教授數는 어차피 늘어나야 될 것이고 결국은 事務職員이나 기타 雇傭員들 문제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協議를 해가지고 雇傭員들이나 不要不及한 管理職들은 앞으로 用役會社에다가 用役을 依頼하는 그런 方案을 지금 摸索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建物管理라든지 清掃라든지 警備라든지 이런 것은 用役會社에다가 맡기면 經費가 상당히 節減되는 그런 暫定的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의 政策的인 결정이 있어야 저희들이 수행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로서는 이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저희 希望事項이기도 합니다마는 만약 醫科大學이 設置가 된다면 大學病院의 收入하고 저희 最少한 醫科大學 運營하고 連繫를 시키면 아마 財政自立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中長期 發展計劃에 관해서 특히 金熙健 委員님, 李汪烈 委員님 그리고 李鍾學 委員님이 中長期 發展計劃이 다 좋은데 결국 주로 擴充 增員 增科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豫算負擔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指摘을 해 주셨는데 아마 絕對額으로는 분명히 豫算負擔이 늘어날 것입니다. 比較的으로 볼때 財政自立도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敎壇에 서

있는 사람들의 立場에서는 教育事業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는 事業이고 또 서울市가 大韓民國의 核인 이상 過多한 負擔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負擔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增員, 增加에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豫算問題하고 또 財政自立度하고 역시 여러 委員님께서 質疑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李喆鎬 委員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李鍾學 委員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金熙健 委員님께서도 質疑를 해 주셨는데 물론 增員, 增科하고 財政自立度하고는 密接한 관련이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增員, 增科가 되면 財政自立度는 분명히 提高가 되고 또 그렇다고 저희 學校가 지금 1,080名을 가지고 계속해서 特화도 하고 市民을 위한 綜合大學으로써 발전도 하기는 힘듭니다. 政策的인 方向設定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市費獎學生에 관해서 특히 李鍾學 委員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관해서는 제가 다 資料를 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費獎學制度는 서울市立大學校를 통해서 서울市가 優秀人力養成 및 確保를 위해 가지고 특히 地方公務員法과 서울市人事規則 등에 根據해서 施行하는 制度으로써 1980년부터 實施가 됐습니다. 일단 市費獎學生은 入學한 成績에 의해서 選拔하는 것이 原則입니다마는 그렇게 選拔이 되면 4년간 登錄金 全額 그리고 月5萬원씩의 修學補助金を 支給을 하고 在學中 所定の 實務實習을 필하고 卒業을 하면 서울市 7級 公務員으로 特採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80年度부터 실시해 왔고 현재까지는 397名이 選拔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99名이 이미 特別任

用됐는데 休學이나 中途拋棄, 大學院 進學 등을 포함해서 115名이 除外가 됐습니다. 그리고 83名이 현재 在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補充答辯으로써 역시 李鍾學 委員께서 增員 增科를 계속 해 가지고 豫算만 追加負擔을 계속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苦心 事項中의 하나입니다.

결국은 서울시 自體內에서도 論議가 두 가지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는 市立大學校로써 特性을 살려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이 들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學科만 集中的으로 育成을 하자하는 案이 있고 다른 案은 綜合大學으로써의 골격을 최소한 갖춰놓고서 增員을 늘리니까 財政自立度도 늘 것이다 그런 다음에 漸進的으로 入學을 시키자 하는 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學校로써 政策的인 答辯을 하기는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孫馥 委員; 현재 서울시에 勤務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企劃室長 安斗淳; 현재 서울시에 勤務하고 있는 숫자는 제가 지금 精確한 資料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資料를 취합을 해 가지고 書面으로 提出을 하겠습니다.

○孫馥 委員; 그리고 아까 市立大學이 市와 市民을 위해서 봉사자 아니라 기여한 실적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던 말이에요. 서울시立大學도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잘 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이렇게 우수한 公務員을 배출해서 좋은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이 기회에 PR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室長 安斗淳;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점심시간이 많이 經過되었습니다. 補充質問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金熙健 委員; 金熙健 委員입니다.

우리 總長님과 오늘 나오신 補職敎授님들이 상당히 苦心하는 霧圍氣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市民들로부터 代辯人 立場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散在해 있고 解決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까 企劃室長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상당히 거슬리는 얘기가 우리는 서울시 豫算에 의해서 研究를 하고 서울市民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豫算이 많이 든다 하는 基本的인 어떤 서울시立大學의 입장에 대한 表明은 우리가 소위 지금 豫算을 審議하고 豫算에 대한 激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論議해야 될 立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니신가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大學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學生들을 얼마나 잘 敎育시키는 것에 대한 뒤에 숨어 있는 管理라고 하는 側面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글쎄, 오늘 財政自立度에 대한 문제 자체가 一般大學의 입장이면 法人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答辯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執行을 하시고 管理를 하실 때 管理不在에 의한 豫算浪費다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幹部님들도 들으면 안 될 얘기고 저희도 그것을 敬畏時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고초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學生示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아까 質問드린 要旨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各種 大學에서 일어나고 있는 學生示威는 소위 얘기해서 時局에 대한 示威가 있고 學校自體내의 不滿에 대한 示威가 있습니다.

표현을 너무 輕하게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學校運營에 대한 어떤 불만토로의 內容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서울大學이나 또는 우리 서울시立大學은 사실은 大韓民國의 4年制 혹은 綜合大學의 어떤 模範的인 가장 먼저 새로운 制度를 實施하는 學校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總長님도 選舉를 통해서 總長이 되셨고 사실 그렇지 않은 大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부적인 문제를 이슈로 하는 어떤 學園內의 騷擾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質問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아까 總長님께서 서울大의 경우에 大統領과 長官이 요사이는 參席을 거의 안 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大統領이 가서 데모만 실컷 당하고 또 長官이 가서 학생들이 뒤로 앉고 왜냐 하면 상당히 극심한 데모시기에 아마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新聞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地方時代가 4年이니까 4年內로 아마 7共和國도

들어서고 安定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분들이 오더라도 보기 싫다고 반대하거나 극력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止揚이 될 것이고 安定勢가 되면 우리 市立大學校 모습에 어떤 位相을 높이기 위한 再考의 方法으로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可能하다면 우리가 地方市委員들이 도움을 줘서 또 建議해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總長님께서 自由裁量껏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가지고 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書面도 좋고 합니다마는 우리 教授님들 참 總長님 비롯해서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서울대나 國立이나 혹은 私立大에 비해서 서울시立大學校의 總長을 비롯한 教授들의 月給이 과연 얼마이고 그 다음에 辦公費라든지 總 합쳐서 어느 정도 되는지 相對的으로 비교가 됐으면 좀 억울하다 하면 豫算에서 우리가 힘이 될는지 모르지 마는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資料 혹은 나중에 거기에 答辯이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런 데서 公開的으로 答辯도 곤란하실 것이고 書面으로 좀 具體的으로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서울市立大總長 申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權會榮; 네, 말씀하세요.

○서울市立大總長 申弘; 점심시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 大學을 살피주시는 마음이 그지 없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金熙健 委員님이 補充質問을 해 주셨는데 제가 辨明 아닌 辨明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企劃室長께서 우리가 市立大學이고 또 市를 위해서, 市民의 子弟를 위해서 하는데 豫算이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趣旨로 드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豫算을 아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李委員님 質問해 주신 것과 關聯이 됩시다라는 저희들이 國·公立大學의 教授 중에 참 市立大學, 公立大學에 속합시다라는 市立大學이나 또 다른 公立大學의 教授들에 비해서 厚生福祉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私立大學에 비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統計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私立大學의 教授 俸給水準이 100이라고 한다면 國·公立大學의 教授 水準이 約 6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더군다나 教育公務員도 마찬가지로입니다라는 報酬體系가 賞與金은 本俸만 支給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私立大學의 教授들에 비해서는 한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울大學이나 地方 國立大學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할 적에 地方 國立大學은 모르겠습니다라는 서울大學校에 비해서 저희 大學은 아무래도 研究費라든가 이런 점에서 좀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구차합니다라는 저희 大學은 教授들을 위한 出勤車輛도 없습니다. 출근버스 한 대 있는데 출근버스가 아니고 學生들의 행사, 教授들의 행사를 위해서 한 대만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아까 企劃室長께서 報告말씀드린 期成會費 學校에서 쓸 수 있는 期成會費가 저희는 4,000名으로부터 徵收를 하고 서울大學은 30,000名으로부터 徵收합니다. 이것은

地方 國立大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0,000名, 30,000名 되는 學生으로부터 期成會費를 받는 것하고 저희가 4,000名에게서 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大學의 教授님들이 서울大學의 教授 못지 않은 실력과 이것은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젊은층을 많이 迎入했기 때문에 훌륭한 教授들로서 構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研究費라든지 福祉側面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점에서 제가 總長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그런 점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管理不在에 의한 豫算浪費는 없느냐 이것은 있다면 없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是正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委員님 좋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學內運營에 대한 不滿示威는 없는가 이것은 저희 大學은 없습니다. 部分的으로 個別教授를 排斥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大學의 運營하고 관련되는 그런 示威는 없습니다.

다만 꼭 이것을 學內的 불만이라고 볼런지 정치이슈로 볼런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분간이 안 됩니다마는 그 중간쯤 되겠습니다.

소위 學內 民主化 鬭爭이라고 해 가지고 敎學協議會를 構成하자 教授하고 學生들하고 1:1로 같이 學校運營에 參與를 해서 合意해서 運營하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느냐하는 것은 지금 시간도 없고 委員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에 대해서 學生들이 不滿을 가지고 혹 示威를 할는지 모

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學內問題하고 學外問題하고 아마 중간분야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이번 2學期에 이미 私立大學 몇 군데에서는 學士除籍制度를 復活하는 學則改正을 했습니다. 저희 大學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보다도 學生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卒業을 한다는 그런 문제를 더 이상 放置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大學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혹 學生들의 저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注烈 委員님이 高位層의 인사들 참석하도록 誘導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總長の 月給은 서울大學 總長하고 똑같습니다. 또 地方國立大學 總長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報酬體制를 본다면 國務委員하고 같은 報酬와 旅費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其他 무슨 辦公費 같은 것은 많이 差異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教授님들의 月給도 國立大學 教授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서울大學 教授님하고 月給이 똑같은데 研究費라든가 이런 점에서 저희 大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現賞的으로 택에 가지고 가시는 額數는 아마 많이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本 文化教育委員會 常任委員會에서 市立大學校에서 總長님 이하 幹部님께서 業務報告와 또 아울러 委員님들의 質疑 應答에 대해서 아주 誠實하고 진지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質疑와 答辯에 대해서 終結을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繼續해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2. 現況報告(教育廳)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教育廳의 教育監께 業務報告를 듣고 또 質疑 答辯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教育監께서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教育監님이 오셔 가지고 人事를 하시고 또 우리가 業務報告를 받는 것이 우리의 所任입니다. 하지만 여러 委員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議事進行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教育廳을 방문하였고 그 때 당시 상세하게 業務報告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會議처럼 時間浪費 내지는 생산적인 會議를 하기 위해서 本 委員의 생각은 教育監의 간단한 人事와 더불어 實務者가 지금 懸案問題에 대한 概略적인 문제만 改進해 주시고 곧바로 質問과 또 質疑應答에 응해 주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議事進行發言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金相復 委員께서 간략한 議事發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教育委員會에서는 우리가 먼저 教育委員會를 방문했을 때 상세한 報告를 해 주셨고 또 本會議에서 나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報告와 答辯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당시에 빠진 중요한 요점만 報告를 해 주시고 그리고 質疑應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教育監 朴炳壙; 教育監님께서 教育部에 會議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올렸습시다마는 副教育監인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人事말씀을 드리는 것을 諒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尊敬하는 權會榮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역사적인 地方自治時代 開幕 후 지난 7月 8日 서울特別市議會가 開院한 이래 教育分野에 대한 여러 委員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 서울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市教育廳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報告드리고 答辯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教育廳은 우리 학생들을 21세기의 주역이 될 民主市民으로 育成시켜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도덕적인 人間教育의 強化, 職業教育의 擴充, 教育與件의 改善 그리고 아직 미흡한 敎員社會의 安定회복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서울教育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아울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改善을 요하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教育의 막중함을 명심하여 教育의 본질적인 내실을 다짐으로써 바람직한 學生像 具現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教育이 밝은 미래를 향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教育廳의 一般 現況과 主要業務 計劃은 이미 報告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주요 현안문제 중심으로 所管局長으로 하여금 자세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敎育課長님의 서울 敎育發展委員會에서 약 3個月에 걸쳐 오늘의 서울敎育이라는 한 권의 敎育白書를 發刊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委員님께 配布하여 서울敎育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報告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敎育廳의 職制가 改編되어 지난 8月 27日字로, 9月 16日字로 人事移動이 있었습니다.

局長級 幹部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容勳 初等敎育局長입니다.

(李容勳 初等敎育局長 人事)

片光範 中等敎育局長입니다.

(片光範 中等敎育局長 人事)

鄭鶴謨 社會敎育體育局長입니다.

(鄭鶴謨 社會敎育體育局長 人事)

鄭沖熙 管理局長입니다.

(鄭沖熙 管理局長 人事)

감사합니다.

○中等敎育局長 片光範; 中等敎育局長 片光範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報告)

現況報告(敎育廳)

(뒤에 실음)

.....

○委員長 權會榮; 敎育廳 敎育監 이하 幹部 여러분께서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業務報告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喆鎬 委員; 지금까지 여러 가지 現況에 대해서 資料提供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喆鎬 委員입니다

첫째, 전교조 회오리 이후에 一線 教師들의 사기가 아주 많이 저하됐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울시 教育廳에선 그렇기 때문에 敎員 스스로 자기개발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敎員들에게 學術 研究費를 支援해 주고 있음은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은 독지가의 지원금을 기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學術研究費는 어떻게 조성해 왔는지 그리고 基金을 造成한 후 支援 實績과 향후 支援計劃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一線 各級 學校의 教育環境이 아주 열악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學生들의 책걸상이 너무 노후해서 學習能率은 물론이지만 學生들의 건강 특히 체위향상에 부적합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教育廳에서 이 문제를 역점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노후 책걸상 교체실적은 어떠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人文系 高校卒業生의 약 70%는 大學에 進學을 못해서 再修生이 범람하고 또 그것 때문에 靑少年問題가 현재 사회문제로 과급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 高校教育體制 改編으로 人文系 高校新設을 억제한다고 했고 實業教育을 확대해서 技術人力 養成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教育廳에서 高校 教育體制改編에 따른 推

進計劃과 推進狀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이러한 施策을 遂行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부자유자와 정신박약아 중 特殊教育이 절실한 學生에 대해서 政府의 支援으로 無償教育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學校施設이 노후하고 또 學校 教育費, 施設費 등의 政府支援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政府에서 豫算支援 現況은 어느 정도이고 學生 개인의 授業料 등의 부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特殊教育 진흥에 대해 어떤 腹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課外亡國이라고 하는 말이 不法課外 團束을 철저히 하다가 근래에 와서 課外를 일부 解除 措置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不法課外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어서 이제는 教育行政機關을 비롯해서 警察이나 檢察까지 합동으로 연말까지 不法課外를 적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團束現況 그리고 課外團束의 애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소상히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鍾學 委員; 李鍾學 委員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首都 서울教育에 전념하시는 教育監님 그리고 각 幹部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本人은 과거 서울시에서 教職으로 있었습니다.

첫째, 質問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수도서울에 初·中敎員의 구성비가 아마 굉장한 변수로 현재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報告를 本 委員도 봤지만 점점 여성화 되어 가고 있다. 여교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신문지상이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國民學校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까지 현재에 와 있는데 서울市內 初·中·高 남녀 교사의 構成比는 현재 어떻게 되며 다음은 여교사가 많을 경우에 學生指導上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對案을 현재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두번째로써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幼兒教育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뿐이 아니라 農村을 가도 먼 단위로 많은 조그마한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봉고버스가, 이것은 거의가 어린아이들을 옷을 입혀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군가가 幼兒教育의 절실함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전 국민에게.....

역시 우리 首都 서울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받을 맞춰 가지고 어린아이라면 特殊教育이다. 幼兒教育이다 이것이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아노 學院이다. 태권도 등등 무수히 많은 여기에 전문가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幼兒教育機關의 종류는 과연 무엇이나 그리고 幼兒教育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그리고 幼兒教育을 받는다면 首都서울의 대상자의 숫자는 얼마이며 그 수강하고 있는 幼兒는 몇 명이 되느냐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零細한 시설, 아마 어디에 가보면 보모라고 하죠. 유치원 교사라고 하죠. 일반미술, 실기교사 등의 資格證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지,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지 하여튼 젊은 아가씨입니다. 현재 그 시설과 零紹性 또 그곳의 커리큘럼 이것은 과연 정상으로 되

어 있는가 조사한 바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책자에서 幼兒教育 振興에 대해서 제 1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검토사항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방향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서울市內에는 아마 많은 過密學級을 가진 學校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部制 수업을 하는 學校가 있습니다. 國民學校가 되겠죠. 2部制 수업을 받는 學校, 過密學級의 숫자가 있는 모든 學校 이것은 왜 묻는가 하면 그 대책방안을 듣고 싶어서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또 質疑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曹相彩 委員; 曹相彩 委員입니다. 教育廳에서 現況說明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現況說明에 빠진 부분을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副教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副教材代가 約 8,000億원이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市 教育廳 傘下에는 副教材代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부교재 거래과정에 있어서 채택자가, 다시 말해서 취급자가 20% 내지 30%의 금액을 支給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教育監께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副教材代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액이

라는 것은 말할 수 없고 또 教育者가 이러한 부조리의 온상의 터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市民이나 國民이 안다고 했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사항도 과연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서울시 文化教育分科委員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教育監께서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學院運營 實態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學院運營이 條例나 細則에 의해서 運營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 적당하게 運營이 되고 있는지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本 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學院의 定員制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합니다. 어느 學院에 가서 定員을 물었더니 실질적인 定員은 500名인데 지금 수용하고 있는 學生의 수는 5,000餘 名이 되는 學院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學院의 체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사한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또 거꾸로 定員이 約 1,000餘 名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4~500名이 되어 있는 學院이 있습니다.

이렇게 500名은 5,000名, 또 約 1,000名은 500名으로 이것이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79年度에 사대문안에 있는 學院을 사대문 밖으로 내보낼 때인데 定員을 調節해 주겠다 하고 國務總理覺書에 의해서 사대문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이것이 지금까지 79年度の 지시사항이 지금까지 定員調整이 되어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選舉時期가 되면 學院院長을 불러 가지고 해 주겠다고 약속들을 늘 하면서도 이것이 履行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本 委員이 조사과정에서 느낀 것은 學院運營은 엄격한 條例나 細則으로 運營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인 장치를 잘 해서 공개된 自律化의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教育監께서는 이 學院의 자율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는 公立學校하고 私立學校에 대한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교정책에 의하여 學生들의 平準化 實施가 되었고 또 學生들의 配定도 추천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學校運營 차원에서는 公·私立 구분이 현저하게 되어 있고 또 私立學校의 財政支援을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私立學校의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소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學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教育廳에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憲法에는 教育機會 均等權利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教育監께서는 私立學校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나 민주국가에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간추려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양보하고 항상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政策改革을 단호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教育學園法은 잘 아시다시피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學園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法이 改正이 되고 또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法이 있습니다. 그 法은 무엇이냐 하면 教育部長官이면 長官의 권한 소위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의 法을 是正이나 또한 改正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教育監께서는 과감하게 교육 행정 개혁을 해서 예를 들면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또 나아가서 공립학교 교사나, 사립학교 교사들이 서로 교류하고 바꾸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本 委員의 생각입니다마는 教育監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 바라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 또 말씀하세요.

○張精一 委員; 瑞草區의 張精一 委員입니다.

同僚委員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學群은 9個 學群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城東區, 城北區 全域과 蘆原區, 鍾路 一部입니다. 이렇게 해서 1學群이 되고 中浪區와 東大門區 全域하고 蘆原區 一部로써 그 2學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江東區, 松坡區, 江南區 全域하고 瑞草區 一部 地域으로 말썽 많은 8學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8學群의 中學校는 73個 校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35個입니다.

그렇게 하고 冠岳區와 銅雀區 全域하고 方背洞 盤浦 本洞의 瑞草區 一部地域으로 9學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91年度 學群別 高校 進學 學生 收容狀況을 살펴보면 1學群에는 學生이 571명이 모자랍니다.

學校施設 用量에 비해 가지고 2學群은 438명이 모자라고 3學群은 709명, 4學群은 무려 2,449명의 學生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5學群이 1,766명이 모자라고요. 6學群부터 이제 學生이 남아 돕니다. 134명이고 7學群은 1,116명, 8學群은 入學定員에 비해 가지고 學生이 무려 3,837명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9學群은 846명, 여기에서 벌써 아시다시피 8學群의 高校數의 絶對不足과 進學 學生數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要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 2, 3, 4, 5學群은 入學定員에 비해 가지고 學生이 부족하고 6, 7, 9學群은 學生이 조금 많은 편이고, 8學群은 高校入學定員보다 무려 3,837명의 學生이 많다는 결론이 됩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 8學群에서 남은 3,837명의 學生이 3, 4, 9學群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자체 3, 4, 9學群 자체 學群內에서 配定이 가능한 한 3, 4, 9學群 學生이 위로 6, 7學群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8學群에 配定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까지 약 38個月을 居住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報道에 의하면 48個月 내지 50個月을 기다려야 관내 거주를 해야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他學群 配定에 또 이것을 年度別로 살펴보면 89年度에 2,969명이 他學群으로 갔고 90년에 3,102명, 91년에 3,837명으로 매년 증가되는 실정인데 언론의 報道에서 보면 教育廳에서는 居住期間을 자꾸 늘리면 學生이 준다는 그러한

장미빛 낙관론으로 보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흔히 일반 시중에서는 릴레이방식에서 앞으로는 징검다리 방식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隣接學群으로 밀리다 보니까 욕을 세 번 먹게 되는데 세 번 먹을 거 뭐 있느냐 한 단계 건너뛰자 이래 가지고 8學群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學校로 穹층 뛰어 넘는 것이 아마 징검다리식 配定方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本 委員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세 번 먹던 욕을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발상이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居住 制限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學校가 모자라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條例로 해서 쓰는데 현재 우리 기본으로 따져보면 근거리 배정원칙이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수용시설을 보충을 못 해 주니까 이러한 다른 방법이 생기는데 편리하게 거주기간을 자꾸 늘리면 配定 學生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38個月, 48個月 이렇게 아예 그만 100個月 정도로 해 버리면 學校가 남아돌아 간다는 이런 계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本 委員이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教育委員會에서 탁상적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教育廳대로 생각을 하면 學校를 안 지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100개월씩 이렇게 제껴 버리면 그래서 4, 5년 후에는 해결이 될 전망인데 그러면 本 委員이 묻습니다. 學校敷地로 많

이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學校敷地로 굳이 계속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어떤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8學群에서 밀려오는 이 學生들에 의해 가지고 다른 學群의 學生들이 집 가까운 자기 學群에서 遠距離 他學群으로 자꾸 밀리고 밀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學父母들의 불만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커다란 社會的 문제 내지는 병폐로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學群을 제외한 全學群의 學父母님들은 8學群은 아주 그냥 없애야 될 그러한 學群으로 생각을 하는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學群에 거주하는 그 자체가 죄인은 아닙니다.

거기에 수용을 못 따라가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있지 그래서 本 委員은 他學群에 피해도 주지 않고 거주지 가까운 學校로 配定을 하기 위해서는 8學群에 高等學校를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各洞을 전부 한번 뒤져 봤습니다. 뒤져 가지고 住民登錄을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僞裝轉入者가 各洞마다 150世帶에서 평균 200世帶의 僞裝轉入者가 나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못 해 봤는데 제가 4個洞을 평균 잡았습니다. 각 동마다 데이터 냈으니까 필요하신 委員님 있으면 資料는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보니까 各洞마다 약 400名에서 한 500名 정도의 僞裝轉入者가 들어왔는데 이 世帶마다 子女 高校進學 때문에 僞裝轉入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洞에 평균 世帶순으로 한 150世帶에서 200世帶가 되니까 어림잡아서 대충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의 생각은 이렇게 이제 僞裝轉入도 철저히 막아야 되겠

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學校도 신설하여 他學群 轉出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서 내년 사이에 城東區 3學群과 銅雀區 9學群의 人文系 高校가 신설된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學校와 學生數가 크게 바란스가 어긋나지 않는 이 지역에 學校를 지으면서 8學群에 굳이 學校를 신설치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新盤浦地域에 盤浦本洞 2, 3, 4洞, 4個洞을 한번 들어보면 거의 99%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여기에 中學校가 5個인데 비해 가지고 고등학교는 남자가 1個校 여자가 1個校입니다. 中學校 5個에 高等學校 1個에다 남녀해서 하나씩 두 개다 그러면 이 자체가 學校數가 또 언바란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공교롭게도 學群도 8學群과 9學群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高校進學 學生數를 보면 들어가야 될 學生數는 4,039名이나 되는데 入學定員은 1,248名으로 어차피 여기 4個洞만 예를 들더라도 遠距離 配定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역내에는 學校敷地로 지정된 곳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이 4個洞에 세 곳이나 있고 고등학교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되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學校敷地로 3值씩이나 5年 내지 10年을 지정을 해 놓고 안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市 教育委員會는 서울시내 學群의 전면 재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新聞報道를 봤습니다. 실지로 지금 그 報道

가 맞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質問을 하는 것입니다. 行政府의 境界와 學群의 境界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8個에서 10個 이상의 行政洞으로써 1個區가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區 管轄이면서도 2, 3個 洞만이 學群에 他學群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學父母들의 커다란 불만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가능한 한 行政府와 學群이 경계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報道된 바와 같이 93년부터 확실히 施行할 것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行政府와 學群의 일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38-48個月에 주거지에서 가까운 學校가 配定이 된다고 그렇게 밝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年 이상 8學群은 瑞草區, 盤浦의 거주지의 자녀가 8學群內 中學校를 졸업하고 집 가까운 바로 길 건너 高등학교가 있음에도 銅雀區 9學群인 遠距離 他學群 高등학교에 配定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의 學生은 同一學群 근거리 高등학교에 배정한다는 基本原則的인 배정원칙에 맞지 않게 配定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學群에 高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제일 큰 이유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豫算 때문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슨 정책 때문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學校設立의 當爲性이

나타나면 政策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상 豫算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教育監님이나 教育廳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래서 本 委員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學校設立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예산확보 문제로 學校設立의 어려움이 야기되는 문제는 토지 조성 시에 學校敷地로 설정만 해 놓고 수년 또는 10年 이상 방치해 놓음으로써 땅값은 계속 상승하여 막상 學校를 設立하려고 보니 엄청난 부지 값으로 인해 가지고 學校設立이 좌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조성 때 學校敷地로 지정될 필요성이 되면 그 당시에 조성 원가대로 買入을 하여 필요시 學校設立을 추진하여 대지 값 상승요인을 막든지 아니면 百年大計의 教育을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나 신도시 건설 시는 택지조성 당시에 앞을 내다보고 學校敷地를 도로나 이런 공원과 같은 그런 公概念으로 해가지고 無償으로 教育委員會에 讓渡를 받고 그 땅값은 나머지 토지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봄직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學校敷地 이외에 대한 購入費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앞으로 문젠데 단기적으로 뭔가 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瑞草區에 개인들만 살지 않는 이상 3~4,000名의 學生들이 매년 멀리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江南區 現代高等學校가 재벌기업에서 사립학교를 지어 가지

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學校給食도 하는데 물론 그 급식은 무료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財閥總帥님께서 상당히 學校에 관심도 많이 갖고 이래 가지고 學校가 나날이 발전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방법에서 재벌기업에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든가 아니면 2세 교육의 참여명분이나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볼 때에 그 취지 하에서 잘 납득을 시켜 가지고 뭐 대우, 선경, 호암, 한신고등학교 이런 유형의 사립학교라도 설립을 권유해 가지고 부족한 고등학교를 해결해 보직도 한데 教育監님께서서는 재벌기업 총수들과 직접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95年度까지 고등학교 신설계획과 신설장소, 착공이나 또는 개교시기 등을 공·사립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學校 주위의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 가지고 學校周邊에 防音壁도 설치를 하고 各種 許可도 규제를 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學校 學生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學校用地로 지정된 垜地에는 學校施設外에는 어떤 建築物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瑞草區 경원중학교 옆 고등학교 豫定敷地에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권자는 瑞草區廳長이기 때문에 허가가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것은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부지이고 기존 중학교 옆이니 우리 教育委員會에다가도 물어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答辯을 잘 해 주시겠느냐 해서 答辯을 신청

을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서울教育委員會는 江南教育區廳으로 알아보시오 하고 넘겼습니다.

江南教育區廳은 입장이 묘하니까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가지고 각 해당 學校長한테로 또 넘겼습니다. 학교장님도 이거 받으시고 참 답답하죠.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또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신청한 학부모한테. 그러한 서류가 뱅뱅 돌아가지고 다시 학부모 손으로 되돌아왔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판단을 할 때는 教育次元에서 응당 不可通報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우리 教育委員會에서 그 현장에 踏査라도 한번 나와 보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 이럴 때 신속하고 재빠르게 3일 만에 다음날 教育區廳으로 떠넘기고 教育區廳은 다시 學校長에게, 學校長은 다시 학부모에게 이렇게 넘겨서 우리 住民들은 教育委員會에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敷地가 政府 投資機關이 土地開發公社 敷地인데 이런 學校敷地를 비싼 땅값 때문에 學校를 못 짓고 있는 동안에 골프연습장으로 賃貸해 준 처사에 대해서 法的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道義的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 바에는 차라리 이를 부족한 學校設立을 위해서 無償으로 기증받아 學校를 지을 수 있는 무슨 非常 妙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이 無償으로 안 된다면 이렇게 빌려도 주는데 規定된 가격으로 정해 가지고 한 5年 据置 10年程度 無利子로라도 分割償還하는 방법도 있음직 한데 教育의 百年大計를 위해 가지고 土地開發公社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말썽이 났기 때문에 이런 便法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該當住民의 陳情과 言論이나 TV를 통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골프연습장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許可權者와 협의하여 취소토록 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教育廳에서는 學校豫定敷地 그것도 수업중인 中學校 옆의 敷地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質疑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委員은 敎員勞組가 2世 教育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尊敬하는 先生님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박수라든가 찬동을 보낼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 그 지경에까지 가고 그러한 조직을 결성을 해야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 보았는지 한번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憲法裁判所에 의해 가지고 法的으로 不法判定을 받음으로서 懲戒라든가 減俸 등의 조치로써 敎員勞組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항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勞組關聯 運動家들 덕분에 學內問題가 조금은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이를 계기로 學校 內部問題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業務量 縮小라든가 不滿不條理를 해결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 敎員勞組라든가 하는 그러한 불법적인 조직의 결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해 가지고

學校 教育에만 專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88올림픽大路 周邊이나 아니면 차량이 過多 통행되는데는 深刻하게 騒音公害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4個校의 防音壁 내지는 粉塵騒音設置를 우리 서울 市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新聞에 報道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 市 教育廳에서는 이 24個校 이외에는 과연 騒音이나 公害나 粉塵에서 시달리는 學校가 없는지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本 委員이 파악한 바로는 그 외에도 엄청난 숫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시 각 學校에 公文을 보내서라도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서울 市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이 보다 좋은 環境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는데 參考적으로 예를 들면 學校立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立地도 있다고 봅니다. 城北區 石串洞에 있는 석관중·고등학교 같은 곳의 예를 들면 바로 전철 옆에, 길가 도로변에 그 바로 옆에 연탄공장이 있어 가지고 애들이 4계절에 문 한번도 못 열어 놓고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울 市 教育委員會에서는 과연 그러한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盤浦中學校에서 교장선생님이 참다 참다가 안 돼 가지고 이런 公文을 해 가지고 瑞草區廳에다가 제발 방음벽 해서 우리 애들이 열악한 環境을 改善해 달라고 5月 27日 날짜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아직 교장선생님 말씀이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좀더 教育委員會에서 이런 것을 좀 살피서 가지고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의 일이 막바로 우리 教育委員會에다

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敎育委員會가 이런 것을 슬선수범 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金相復 委員;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이 한 분이 너무 많이 해 버리니까 다른 委員님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오늘 이 진지한 會議는 우리 敎育分科委員會의 영원한 白書가 될 것으로 우리 委員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다 끝나지 못할 바에야 10分間 停會를 하고 다시 시작하고 세월이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分間 停會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너무 지루하고 또 그래서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23分 會議中止)

(15時 38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續開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계속 質疑하실 委員님은 質疑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金熙健 委員; 안녕하십니까. 金熙健 委員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條件內에서 우리 首都 서울의 敎育을 담당하고 계신 敎育監 이하 서울시 敎育廳 職員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質疑內容이나 또는 앞으로 서울敎育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根本的인 문제가 아마 豫算이 모자라서

學校를 짓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음으로써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管理局長님 所管의 質問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 教育廳의 豫算 중에 私立學校에 支援되고 있는 豫算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私立學校 支援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이 있으셨지만 첫 번째로 公立學校學生과 비교한 私立學校 中·高等學生의 1人當 教育費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자료가 준비가 되시는 대로 90年度도 좋고 89年度도 좋고 一例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公·私立간에 中等학교 學生數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質問은 아마도 우리 首都 서울의 教育중에 私立이 차지하는 教育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예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번째 質問은 우리 副教育監님 나오셨으니까 副教育監께서 과연 이러한 어려운 조건 내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私學에 이렇게 支援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서울시 教育廳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개인적인 所見보다는 서울시 教育廳의 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學群配定에 관계된 문제 또는 어떤 교육차별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學校가 멀어서 멀리 있는 學校에 가야만 하는 學生들도 있고 또는 學群 配定상의 문제 때문에 묘한 삼각지

대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私立學校에 支援하는 豫算을 그런 지역에 支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러한 教育廳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日날 本會議 答辯中에서 管理局長님께서 國庫 支援과 관련한 同僚議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 中에서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이 改正되어야 하나 전국적인 문제이고 內務部의 同意를 받기가 어려우나 改正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과연 이미 教育財政과 관련된 두 法律의 改正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 것인지 인정을 하셨다면 다음 會期中에 건의할 改正案을 작성하셔서 本 委員會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또 質疑 계시면 말씀하세요.

○劉起鍾 委員; 劉起鍾 委員입니다.

저는 障礙者 教育問題에 대해서 몇 가지 質問할까 합니다. 우선 障礙者 學校의 地域配置現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障礙者들이 障礙者 學校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입학을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든다면 맹인일 경우 시력이 얼마까지라야지 盲人으로 인정받고 입학할 수 있는지, 聾啞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오늘 바쁘시면 書面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입학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당황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質問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特殊學校들은 特殊教師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教育을 하고 있고 또 特別活動費 같은 것을 補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特殊學校들이 土曜日이나 주일 날 같은 날 그 지역에 특수한 障礙者들을 위해서 開放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방을 안 했으면 앞으로 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1979年度에 障礙者를 위한 義務教育이 제대로 잘 실시되고 있고 또한 障礙者들을 위한 特殊就業이 대한 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한 障礙者들의 就業活動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盲人인 경우에는 指壓이라든가 기타 鍼術같은 것으로 特殊教育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아라든가 아니면 肢體不自由兒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學生들에게는 어떠한 教育을 시켜서 그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취업에 도움을 줄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學校의 施設平準化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서울市內에 있는 初等學校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설이 노후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江西區 加陽洞에 91년 된 陽川國民學校라고 하는 學校가 있는데 이곳은 아마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學校정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學校環境改善에 지출되는 그 비용이 실지 緊急을 요하고 學校施設이 改善이 꼭 필요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學校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서무과장이 教育廳과 잘 알거나 로비를 잘해서 改善費를 갖다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學校 環境改善에 支出된 그 學校의 명단과 그 다음에 支出金額을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0年度에 學校 環境改善費를 볼 것 같으면 90年度에는 488億원을 支出했는데 91年度에 豫算이 291億원으로 감소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學校 環境改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는지 아니면 豫算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 教育環境이 나쁜 것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선 소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學生들에게 教育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리고 또 淸掃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學校를 건설을 할 때 설계부터가 좀 잘못 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창문 같은 것이 많이 틈이 났다든가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든가 또 構造上으로 제대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教育을 하는데 教育環境에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學校의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겠지만 그러한 기본설계 도면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해 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오늘 이렇게 教育廳 教育監님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教育의 懸案問題들에 대해서 서울 市議會 文化教育 分科委員들하고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한데 대해서 앞으로 대단히 발전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文化教育常任委員會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選出한 教育委員會하고의 관계를 教育行政에의 執行機關

인 教育監의 見解를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質疑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教育活動에 支援도 하고 또 1,000萬 서울 市民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教育自治法이나 地方自治法을 보게 되면 그 機能과 權限이 教育委員會하고 거의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럼 執行機關長이 항상 양쪽 委員會하고 常任委員會하고 와서 똑같은 質疑를 받아야 되고 또 監視監督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教育에 좀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 教育委員會하고 우리 서울市議會 文化教育分科委員會하고의 관계를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또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教育監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教育委員 選出할 당시에 經歷者가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選舉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教育委員은 教育의 전문성도 물론 대표를 합니다마는 納稅者의 입장에서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1,000萬 서울市民을 대표하는 市民의 의견을 教育정책에 반영하고 또 市民이 낸 세금을 우리 자녀들에 대한 教育에 잘 쓰여지는가를 監視監督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選舉에서 볼 때 教育委員 選出問題가 잘 選出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행여나 앞으로의 教育行政에 있어서 지난 흘러간 과거처럼 教育者들끼리 모여서 教育者 自治처럼 말이죠. 市民의 뜻이 무시된 채 教育行政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老婆心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教育委員會하고 文化教育常任委員會하고의 앞으로의 좋은, 건설적인 2千年代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教育정

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執行機關長이신 教育監님의 하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中等教育局長님께서 業務現況 報告때 말씀하셨지만 在學生 學院受講提案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在學生의 學院受講은 방학 중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학생 과외는 전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李喆鎬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시다마는 高額課外가 집중 단속되고 성행된다고 해 가지고 연일 텔레비전이나 또는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高額課外라는 것이 富裕層 학생들의 高額課外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庶民層의 學生들의 學習 補完機會는 學院출입을 방학동안에 하고 전면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國民階層間에 違和感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解消를 위해서는 在學生의 學院受講을 94年度까지 入試制度가 바뀌는 그때까지 보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허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再檢討의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學院에 아까 曹相彩 委員님께서도 아주 깊숙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시다마는 學院의 新規亂立으로 인해서 惹起되는 현재 學院教育의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당국의 無制限 新規認可 登錄으로 인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教育白書에서도 나온것 처럼 30,000個가 넘습시다 學院이. 지금 현재 연례적으로 보면 연간 20% 이상씩 學院數字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都心에 보면 건물이 하

나 신축하게 되면 먼저 學院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亂立으로 인해서 小規模 學院들의 競爭이 굉장히 심각한 운영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競爭도 마찰도 되고 運營難으로 變態運營을 하고 있는 學院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學院의 亂立과 또는 零細化를 방지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루과이라운드의 教育市場 開放에 대비해서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 學院의 新規認可登錄을 凍結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學院의 新規認可 登錄事項에는 서울特別市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條例 第4條第3項에는 學院의 分布, 豫想 利用者數, 規模 등을 고려하여 관내 지역별 敎習 需要基準을 정하여 學院의 新設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고 規定되어 있는데 현재 이 受容基準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新設은 적정하게 조정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서울로 봐서도 30,000個 이상의 學院이 있는데 그 學院의 受講料는 劃一的으로 主務官廳에서 조정과 또 物價當局의 規制를 받고 있습니다.

學院敎育은 지역별 시설, 敎育의 질에 따라 다른 다양성을 감안하여 當局의 規制를 좀 완화해서 上 또는 下限線을 정해 주고 經營者가 自律的으로 책정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學院들이 영세함에 따라서 건물을 賃借 運營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 賃借料의 물가상승률이 38%나 해당되는 반면에 學院의 受講料는 불과 5% 미만에 그치고 있

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私學教育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學院教育의 振興하고는 현 상태가 멀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도 용의가 있으신지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孫允準 委員; 孫允準 委員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委員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要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答辯도 간단하게 요점만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라 하면 신경화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식탁의 반찬이 바뀔 정도로 자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차제에 教育을 담당하고 계시는 教育廳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문제를 質疑應答式 說問調査로 끝내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서 철저한 방법으로 가장 教育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體感을 느껴가면서 教育의 일환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學校의 근거리에 있는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教育廳에서 지금까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有害環境業所를 制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學校周邊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표시판이 과연 그 標示板대로 어린이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제대로 표시판 구실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표시판이 뒷골목으로 가고 표시판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뛰고 놀아야 할 곳에 상업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목격을 하고 그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學校, 學習物 기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學校에 시설했다 하면 그 모두가 國庫 補助費로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學校施設 기타 컴퓨터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또 시설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쪽에 있는 學校 중심사업입니다.

學校長의 민주적 운영이다 또 學校運營의 公開, 敎員 人事의 合理化, 敎員의 不信要素 除去 이렇게 예산, 결산을 공개해 달라하는데 이것이 사실 현재 學校長 선생님이 전체의 學校 敎師들의 뜻을 받들어 民主的으로 운영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해 왔더라는 확실한 答辯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學父母의 教育활동의 참여의 폭을 제가 한 가지 中心的으로 묻겠습니다.

育成會, 어머니會, 名譽敎師, 生活指導, 自願奉仕者 그리고 學校 環境改善의 同參, 환경정화의 날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저는 環境淨化의 날로 정하는 것보다 教育 발전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育成會, 어머니會, 名譽敎師, 生活指導, 自願奉仕者가 學校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育成會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그 다음 어머니회가 그 몫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學校 하나마다 많은 財政的인 支援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育成會, 어머니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주위 모든 학부모들이나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탄을 받지 않고 제대로 育成會, 어머니회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肢體障礙者 문제입니다.

肢體障礙者 문제를 지금 劉起鍾 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 肢

體障礙者 學校는 特殊學校라고 지정해서 일반 學生들과 같이 學校를 제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東部教育廳에 보면 옥정중학교가 있죠. 옥정중학교 같은 실태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肢體障礙者와 一般 學生이 같이 등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學生들이 肢體障礙者에게 조금 철부지 애들이니까 손가락질하고 이런 부자연한 것을 보니까 그 부모된 입장에서 굉장히 보기가 거북하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肢體障礙者와 一般學生과는 좀 차이를 두어서 또 肢體障礙者를 特別支援하여 特殊學校를 一般人이 생각하는 特殊學校에 관심이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學生들과 肢體障礙者의 심리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學生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肢體障礙者의 특별한 방법 一般學生들과 함께 공부를 하지 않고 肢體障礙者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肢體障礙者가 一般 學生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함께 수용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말씀이 계시면 質問하세요.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오랫동안 무척 서울시 教育發展을 위해 애쓰시는 副教育監님 및 여러 關係官님들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教育廳에서 계획하고 있는 實業高等學校 學生受容 指標를

볼 것 같으면 91年度 人文高等學校 學生數가 67%인데 實業高等學校學生數 33%에 달하는 이 숫자에 비해서 4年 뒤에 95년에는 人文高와 實業高의 學生數를 50%씩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人文高나, 實業高等學校의 學生需給 調節은 어디까지나 學生들의 學校選擇 여지에 의해서 조정될 문제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는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弘報와 또한 進學制度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實業系 高等學校의 擴充計劃은 차질이 없을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금연 연합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중고생의 흡연실태보고서나 한국약물남용연구소가 최근 강원도내 고등학교 學生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고등학생 중 3名 가운데 한명 꼴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市教育廳에서는 서울市内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상태를 최근에 조사한 일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또 이들 중·고등학생들의 금연운동을 위해서 각 學校에서 어떠한 계획은 없으며 또한 市販되고 있는 담배에 중·고등학생들의 금연방지를 위한 전면 광고를 掲載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滿 5歲 아동의 국민학교 입학을 선별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教育界 일부에서나 또한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國民學校 入學兒童의 경우에는 入學日인 3月 1日을 기준으로 해 생일이 만6세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더라도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경직된 현행제도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2, 3年씩 다녀야하고 일부 학부모 경우에는 戶籍을 고쳐가면서까지 자녀를 입학시키는 비교육적인 사례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滿5歲 취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학부모들과 또한 早期入學의 弊端과 選別人學 許容의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教育監께서는 早期就學의 長短點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市教育廳의 立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幼兒教育의 문제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1年 4月 1日 현재 幼兒教育機關 현황을 보면 公·私立 幼稚園과 새마을 유아원이 1,455個所에 幼兒員數가 10萬 1,495名으로써 5세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에 就園率이 39.4%에 불과합니다.

이토록 就園率이 저조한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또한 전체 幼兒教育機關의 72%가 2學級 이하의 소규모 영세유치원으로써 雜附金 問題 등 變則運營이 普遍化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이 教育費 負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수립과 아울러 철저한 監督과 또한 指導行政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 유아원을 포함하여 私立幼稚園의 1,431個所인데 반해 公立幼稚園은 24個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幼兒教育機關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력을 보면 教育廳의 獎學官이 1名이고 獎學士가 2名으로 1人當 擔當園數가 485個園이고 9個 傘下教育廳에도 獎學士 2名, 一般職 1名뿐이어서 이들이 擔當해야 할 園數가 21個園이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幼兒教育院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 教育部와 教育廳에서는 豫算을 增額 編成하여서 公立幼稚園을 증설하고 또한 行

政人力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92年度 豫算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서울市 곳곳에서는 零細民들이 많이 살고 있는 취약지구와 소위 달동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次元에서라도 이들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就園할 수 있는 公立幼稚園 또한 그러한 여러 비슷한 점을 최우선적으로 취약지구에 설립하여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말씀이 계시면.....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생활지도에 관한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두 가지 과제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지도는 교실내에서 행해지는 선생님들의 고유영역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삼가하고 생활지도중 校外生活指導에 대해서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역할중 생활지도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學校의 힘만으로 교사의 努力만으로는 생활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른 價値教育을 담당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學校가 이 중요한 기능을 소홀히 해선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校外生活指導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며칠 전에 中央日刊紙에 報道된 대학로에서 청소년들의 飲酒, 歌舞, 吸煙, 無秩序하고 紊亂한 퇴폐스러운 폭행. 暴力事件의 實際 모습이 校外生活指導의 現住所입니다.

대학로 주변 住民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에 배치되어 職務를 수행한 경찰의 얘기는 기사화 되었지만 신문 어디에도 學生들의 타락의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 설령 力不足이라 하더라도 校外 指導次 대학로에서 巡廻 先導活動을 했다는 기사가 나지 않아서 教育廳, 教育區廳, 一線學校가 모두 다 校外生活指導를 度外視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教育監께서 把握하고 계신 一線學校의 校外生活指導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教育廳은 學生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보호해 줘야 되지만 동시에 所信있고 熱意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현장지도중 당할지도 모를 集團暴行 等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호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외 생활지도상의 제반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셋째,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사들이 교외생활지도에 임할 때는 인근 警察官署와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여 警察兵力의 지원을 받으라고 한하는데 교외지도 교사와 조를 이루어 선도 활동을 해 줄 警察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교사들끼리만 校外指導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力不足으로 때로는 위험을 느끼면서 강력한 지도를 못하게 되어 결국 어느 학생이 경찰에 연행되어 일신상의 不利益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현장지도에 임할 수 있게 또 그리하여 우리 學生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教育廳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넷째, 대체적인 흐름이 교외에서의 지도는 교사보다는 경찰에 의존하는 教育上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轉換되어 가는 느낌을 받는데 學生指導를 아무리 교외이지만 경찰에 위임하는 듯한 지도형태는 教育者의 설 땅을 스스로가 잃는 哲

學없는 대처방안인데 이 방안을 그대로 維持하실 의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가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金相復 委員; 質疑가 없으면 本 委員은 議事日程 變경을 요청하면서 停會를 요구합니다.

議事日程 調整의 件에 대해서는 그 목적론이 조금 전에 저희 質問 가운데 石串洞 학교 현장이 연탄공장 내지는 전철역 근처에 있어서 부적합한 데에도 그대로 放置해 주고 있는 사실, 그리고 一說에는 4,000餘名이나 되는 學生數를 가진 學校가 아직까지도 콘서트 건물에서 수업하고 있는 이 현장 등등은 바로 우리 文化教育委員들이 직접 답사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常任委員會는 常任委員會 규정상 옥내에서 얘기하고 質疑하고 答辯하는 것만 常任會 활동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야외에 가서라도 하는 모든 행위를 常任委員會행위며 또한 質問과 答辯도 거기 접목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石串學校 현장답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常任委員會에 되어 있는 12日字 業務現況報告 公報官室에 13日字 業務現況報告 서울特別市 教育公務員 報告를 12日로 당겨주고 13日은 石串洞 학교 현장답사로 常任委 활동할 것을 議事決定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日날, 13日날, 우리가 常任委員會에 활동할 것을 13日 것을 12日로 당겨주고 13日은 石串洞 學校 현장답사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議事日程 調整 및 議事日程 懸案에 대해서 變更事項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議長님께서는 可否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會榮; 金相復 委員께서 議事日程變更에 대한 意思

가 있었습니다.

13日에는 市 公務員 教育院에 대한 業務報告現況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質疑가 워낙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質疑를 시간도 모자라지만 지금 이것을 다 答辯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日날 오전까지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教育監께서 또 참석을 해 주시고 答辯을 해 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오후에 우리가 그 현장을 어딘가 한군데 選定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나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質疑가 별로 없으시면.....

○金相復 委員; 아니 可否를 물어주세요. 委員님들도 원하는가.

○委員長 權會榮; 여기 議事日程에 대해서 異意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孫馥 委員; 오늘 質疑한 내용에 대해서 教育廳으로부터 答辯을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 들어보고 그것이 종결이 안 되면 書面質疑를 받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13日날 다시 質疑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일부 答辯을 한다고 그래봤자 불과 1/10도 안 될 것 같고 워낙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루 종일 진지하게 물었는데 이런 答辯을 하려면 몇 시간동안 해도 어려울 것 같고 도저히 이것은 어려운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金相復 委員이 議事日程을 변경해서 13日 오전에 答辯을 듣도록 하고 또 우리가 실제 나가서 현장도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또 거기 아올러서 자가용을 각기 타고 가는 것보다는 버스를 좀 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가서 현장답사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意思가 계신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은.....

(「찬성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權會榮; 異意가 없으시죠?

○孫馥 委員; 答辯은 오늘 듣는데 까지 들어보고요.

○金相復 委員; 물론이죠. 그건 전제되고.

○孫馥 委員; 내일 모레 오전까지 전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
까.

○金相復 委員; 아니, 議事日程을 조정하자는 그런 뜻으로
.....

○委員長 權會榮; 우선 議事日程은 그렇게 변경을 하고 아직
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시지만 答辯할 수 있는
데 까지 좀더 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提案이셨습니다.

○孫馥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님!

○委員長 權會榮; 천천히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차례 차례
로.....

○孫馥 委員; 答辯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도 한 10分 停會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10分 가지고 答辯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한 10分 停會를 한 후에 答辯할 수
있는데까지 答辯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副教育監님 答辯이 가능합니까?

○副教育監 朴炳墉; 가능합니다. 그러나 빨라도 30分이 있어
야 합니다.

○曹相彩 委員; 그렇죠.

○委員長 權會榮; 말씀하세요.

○李汪烈 委員; 이왕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그 學校하고 그 다음에 肢體不自由者들이 다니는 學校를 가서 뭔가 우리가 改善方案도 연구를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답사를 할려면 거기도 가고 肢體不自由者들이 다니는 學校도 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相復 委員; 合併시킵시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教育委員會 副教育監님 말씀도 10분이나 이렇게 停會해 가지고 좀 答辯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건대도 워낙 많습니다. 質疑가.....

本會議에서全體 質疑하는 것 만큼이나 많은데 이런 많은 質疑에 하도 여러 가지 복잡성이 많은데 갑자기 答辯을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3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6時 24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會議를 續開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副教育監 朴炳墉; 答辯 올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장시간 서울 教育을 걱정해 주시고 심도있게 質問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委員님들의 質疑事項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答辯을 올리고 가능한 한 시책에 반영하여 首都 教育이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質疑 事項이 너무 龍大하여 諒解해 주신다면 李喆鎬 委員님, 李鍾學 委員님, 曹相彩 委員님의 質疑에 우선

答辯드리고 그 외에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서는 13日 答辯 드렸으면 하는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江南教育長이 陪席하였기에 張精一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경원중학교 옆 실내 골프장 허가와 관련 教育廳의 그동안 조치사항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曹相彩 委員님께서 教育監이 직접 答辯하라는 말씀이 계셨습시다마는 教育監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副教育監인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副教材 현재 學校에서 채택하고 있는 現況과 採擇料로 20내 지 30%를 지급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현재 副教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세히 答辯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學校에서 副教材 채택에 따른 무리가 있는 것으로 報道된 바가 있습니다.

學生學習 參考書 소위 副教材는 사단법인학습자료협회에서 심사 통과된 자료에 한해서 學生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따라 購讀活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教科用圖書에 관한규정 第51條와 第52條에 의하면 이용에 의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는 수업시간에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著作者와 發行者는 學校의 教직원에게 허가 저작권 발행한 교과용 도서 및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의 채택을 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教育廳에서 이와 같은 학습참고서에 대한 비리를 예방하고자 금년만 하더라도 5회에 걸쳐서 校長, 校監 會議를 통해서 지도해 왔습니다.

現在 副教材 採擇現況을 一線 學校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副教材 채택과 관련된 부조리가 根絶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教育部에서는 학습부교재 관련 제도 전반적인 改善方案을 현재 立案中에 있고 지난번 그와 같은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不條理가 一線學校에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委員님들의 質疑 事項에 대해서는 擔當局長, 初等教育局長, 中等教育局長, 管理局長이 직접 나와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中等教育局長 片光範; 中等教育局長입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質問해 주신 순서대로 答辯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관계로 순서대로 答辯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答辯드릴 내용은 먼저 李喆鎬 委員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교조의 회오리 이후 일선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 教育廳에서 교원 스스로 자기 開發과 研究를 할 風土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敎員들에게 學術研究費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착상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學術研究費는 어떻게 조성해 왔으며 기금은 조성한 이후 지원 실적과 향후지원 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教育廳은 88年 4월에 기금 3億원을 추렴해서 서울學術研究獎學財團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기본 재산이 5億 7,000萬원인데 운영은 그 利子와 여기에 뜻을 같이 해주는 여러 他 財團에서 委託해 오는 寄附金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8年度부터 현재까지 4年間 지원한 學術研究費 寶績은 교직원 374名에 대해서 3億 3,400萬원을 지원 했습니다. 앞

으로도 기본재산의 利子收入과 他 財團으로부터의 寄附를 받아서 敎員의 學術研究費를 매년 1億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曹相彩 委員님께서 주신 質問입니다. 두 가지 면을 質問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私立學校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公·私立學校間 교원 인사교류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릴 내용은 현재 公立敎員이 私立校로 가서 勤務하는 것은 희망자도 없고 또 私立學校에서도 그것을 원하지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公立敎員이 私立學校로 가서 근무한 실적은 없습니다. 私立敎員의 公立學校 特別採用 저희가 이 용어를 法에 있는 용어 그대로 特別採用이라는 말을 씁니다. 特別採用은 88年 이후 현재까지 최우선적으로 私立學校가 閉校가 되거나 또 어느 課가 없어지거나 또는 學級이 줄어들 때 생기는 課員敎員이 있습니다. 그 課員 敎員 94名을 저희들이 特別採用했고 또 저희가 부족한 敎科 敎員을 297名을 特別採用해서 합계 390名을 特別採用했습니다. 390名 이외에 敎育專門職으로 私立學校에서 4名을 시험을 봐서 特別採用했습니다.

이와 같이 不足敎科 敎員을 特別採用할 때에는 저희가 서울시 사립중등학교 교장회에다가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複數推薦을 해 주십니다. 그 複數推薦을 받아서 저희가 任用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私立敎員의 公立特別採用은 缺員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속해 나갑니다. 이때 저희가 私立에서 받아오는 敎員은 주로 高齡者가 됩니다. 高齡者가 됨으로써 私立學校의 재정난을 일부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初等教育局長 李容勳; 初等教育局長 李容勳입니다. 李鍾學
委員님께서라면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市の 初等學校의 경우 教師의 남녀 구성 비율의
경우 여자수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學
生들의 여성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국민학교의 敎育은 상당
히 심각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또 初中學校의 남녀 구성비와
지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
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는 質問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市內에 初·中學校 敎員이라면 校長, 校監, 敎
師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91年 8月末 현재 初·中學校의 男子 教師의 數는 6,656名,
女子는 1萬 7,421名으로써 國立初等敎員의 男女 構成比는
27:73입니다.

직위별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校長이 89:11 校監은 80:20 敎
師는 25:7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여敎員이 남敎員에 비해
서 약 2.7배가 되고 있습니다.

中·高等學校 敎員의 男女 構成比는 中學校의 경우 公立은
37:63, 私立은 63:37이며 高等學校의 경우는 公立의 경우
74:26, 私立은 74:26입니다. 여기서 보면 私立學校는 公立보
다 女敎師의 比率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中高等學校
의 敎員의 構成比를 전체적으로 보면 公私立 공히 60:40이라
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女敎師가 많은 경우 生活 指導上에 또는 그 學生
指導에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國民學校의
경우 사실 知識敎育보다는 人性敎育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가 부모양친 밑에서 자라는 것이 人性敎育에 가장 원
만한 것이라고 볼 때 사실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다면 國民學

校도 男教師, 女教師가 同數의 비리로 있다면 가장 理想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敎員 任用하는 제도로 말씀드리 본다면 91年度부터 敎師任用制度를 國·公·私立敎育大나 師範大學, 敎大나 師範大學 卒業者와 그 밖의 敎師資格所持者의 公開採用을 하고 여기에 合格者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敎師養成大學에서부터 여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고 또 應試者 역시도 여자가 다수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採用時 男女 採用比率을 조정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은 公務員 採用의 경우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의 경우를 비추어본다 하더라도 敎育大學이나 師範大學의 경우 여자 學生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자연히 女敎師가 다수 採用되어 온 것으로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女敎師가 많다는 문제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취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生活指導上의 問題點을 말씀드리한다면 사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男子敎師, 女子敎師의 투철한 사명감과 敎職觀으로서 이를 克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幼兒敎育 사항에 대해서 質問이 계셨는데 幼兒敎育機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公立國民學校에 병설되어 있는 幼稚園이 있고 소위 公立입니다. 그리고 私立 幼稚園이 있고 과거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해서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學院의 경우인데 음악, 미술, 태권도學院 같은데 幼稚部가 설치될 때 이것이 法으로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敎育機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는 그런 것이 있고 幼稚園 就園對象者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對象者는 약 25

萬名 중에서 현재 정확하게 따지면 39.4%인데 약 40%인 10萬 1,500名을 就園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幼兒教育機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의 2年制 전문대학 또는 4年制 대학의 幼兒教育學科 卒業者 중에서 幼兒教育 資格所持者를 任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私立幼稚園이든 公立幼稚園이든 幼稚園에는 資格所持者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社會教育機關인 음악, 미술 또는 이런 데에서도 資格所持者로서 任用하도록 法에 規定이 되어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幼兒教育 振興方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60%가 就園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현재 서울의 경우 幼稚園의 분포를 보면 都心地 또 就園하기 좋은 지역은 私立幼稚園이 대개 있고 公立幼稚園은 서울의 변두리 지역 아주 脆弱地域에는 公立幼稚園을 병설한 셈입니다.

다만 한두 군데가 中心地域에 있는데 그것은 教室事情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公立幼稚園을 더 教育部하고 협의해서 定員을 확보하고 해서 周邊地 脆弱地域에 公立幼稚園을 더 좀 병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私立幼稚園의 경우는 教育部에서 현재 재정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就園率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啓導를 계속해왔고 계속적으로 幼兒教育에 대한 정상운영에 대해서 獎學指導를 해서 就園率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社會教育體育局長 鄭鶴謨; 社會教育體育局長 奠鶴謨입니다.

學院의 정상화 방안하고 최근 일간지에 每日 게재되고 있는

不法課外, 高額課外,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委員님께서 質疑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李喆鎬 委員님께서는 亡國課外라고 할 수 있는 이 不法課外 양상하고 團束實績하고 向後 措置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曹相彩 委員님께서는 學院의 定員制가 실시되고 있느냐, 두번째는 사대문밖에 이전한 學院의 정원 현실화 문제가 과거 78年度에 政府次元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그 다음 學院의 自由定員에서 諸般 關係規定을 改正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學院은 自律的 運營을 허용할 用意는 없느냐 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孫馥 委員님께서는 在學生 學院 受講制限을 조속히 是正할 用意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學院 新規設立의 허용으로 인한 亂立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新規設立 허용을 凍結할 用意는 없느냐 그리고 學院亂立으로 既存學院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또 영세화 내지는 경쟁이 深化되고 있는데 學院 受講料의 自律化 措置 用意는 없느냐 이렇게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委員님의 말씀을 제가 좀 순서는 바꿉니다마는 총괄해 가지고 答辯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保有하고 있는 學院數 現況하고 요즘에 不法課外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뭐냐 그 다음에 또 不法課外 중에서도 요새 高額課外를 지금 현재 자꾸 신문에 떠들고 있는데 그 類型이 뭐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整理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市 教育廳이 保有하고 있는 學院數가

12,815個가 있습니다.

또 과외교습소가 16,682個 그래서 29,490餘個 約 30,000個에 달하는 이런 個所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不法課外란 형태, 저희가 要約을 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學院과 課外教習所의 認可登錄 및 申告를 하지 않은 자의 課外 教習行爲를 일괄 얘기하고 있고 특히 大學 在學生이 아닌 자의 課外教習 行爲입니다. 즉, 大學生들 현재 지금 지난해 6月 16日자로 이것이 풀렸는데 學費調達을 目的으로 하는 課外는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이외에 營利行爲를 하는 이런 상태가 있고 또 學期中 입시 및 검정고시학원에서 재학생을 불러 가지고서는 教習行爲하는 이런 類型을 저희들이 가려서 不法課外다 해서 저희들이 集中團束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高額課外하면 유형별로 어떤 사람이냐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제가 강조 설명 드리면 우선 學院에 있다가 퇴직한 강사들이 자기네들의 生計維持를 위해서 일정한 學生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또 대학생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營利的 目的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教習行爲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현지 學院講師 또는 저희들 지금 傘下에 많은 우리 7萬 餘名の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 중에서 教習行爲 이런 것이 高額 내지는 그룹과의 형태로 신문에 떠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 內容에 대해서 항목별로 소상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喆鎬 委員님께서서는 그간의 단속 실적하고 향후 조치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선 學院의 경우만 말씀드린 대로 12,800餘個 學院중에서 8月

30日 현재 傘下 教育區廳까지 本廳을 합해서 사회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約 90名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약 8,600餘 個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된 個所가 約 3,600個所 나머지가 아마 正常的으로 運營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課外教習所 얘기를 말씀드리면 1萬 6,600餘個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실태조사한 수가 約 1,880餘個所 摘發個數가 1,467個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摘發된 個所를 實質的으로 행정 처분은 어떠한 類型別로 했느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學院에서 저희들이 摘發한 3,689個 個所 중에서 저희들이 廢院 措置한 것이 123個所나 있고 그 다음에 休院措置한 것이 374個所 그 다음에 경고 내지 是正 措置한 것이 約 3,200個所가 되고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해서 稅務官署에 稅務查察을 의뢰하는 것이 약 2,035個所나 있습니다.

다음에 課外教習所는 저희들이 1,021個所를 廢止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70個所를 休院을 시켰고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警告是正을 360餘個, 그 다음에 稅務官署에 통보한 것이 約 180餘 個所가 되고 저희들의 특히 중점단속 대상이 되었던 無認可는 466個所를 적발해 가지고 전부를 行政 措置했습니다. 그 중에서 質的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無認可 學院도 89個所에 대해서는 刑事告發을 단행한 사실을 報告드립니다.

다음은 曹相彩 委員님께서 이 學院의 定員과 懸案問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教育廳에서 認可한 學院數가 앞에서 報告드린대로 約 12,800餘 個所, 定員은 約 189萬 6,000名,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學院內 시설기준에 의해서

定員制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定員의 현재 수용사항을 말씀드리면 約 절반정도 즉 2/3, 8,000餘 個所가 다 受講生을 반 정도 受容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約 1/3, 約 4,000餘 個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學院은 교습자의 학습욕구하고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受講生이 모이고 또 계절적으로 學院마다 受講生의 雲集 傾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단속하러 나가 봐도 조사 시기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行政 指導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學院 내에서도 유명강사가 있다면 거기에 우 하고 물리고 있는 傾向이 있고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또 애들이 물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定員 制가 있느냐 하는 말씀 당연히 指摘하실 내용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이런 점을 단속 착안을 해서 계속해서 認可한 定員 範圍內에서 正常的 學院運營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사대문 밖에 이전한 學院의 定員現實化 문제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78年度에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國務總理 指示覺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대문 권에 있는 學院을 5km 사대문 밖으로 移轉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입시학원이 33個가 있었는데 그때 이 學院들을 5km 밖으로 우리가 移轉을 시키면서 政府次元에서 약속했던 것이 옮긴 후에는 定員을 現實化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는 시설을 擴張해 주겠다 또는 稅制惠澤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이 約束이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實務者로서도 이 業務를 담당하면서 대단히 고충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89年末에 와 가지고 首都圈 整備 計劃法이 생겼고 또 施行令 속에다가 增員을 해야겠다는 改正要旨의 條項이 반영이 돼 가지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90年度에 1次 案件을 가지고 增員 現實化문제를 上程을 해 봤더니 이게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首都圈 整備 審議委員會에 이 案件이 통과돼야 하고 또 建設部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過程에서 당분간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 문제를 저희들이 上程을 해 놓고 현재 지금 時期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學院 運營의 자율화를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學院에서의 교습대상이 주로 未成年者 그리고 學生層 그리고 일부 成人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良質의 教育內容하고 또 좋은 환경속에서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어진 關係法規 範圍내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學院의 자율화는 궁극적으로 그야말로 이 사항은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推進해야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先行條件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면 우선 學院 經營者 되시는 분들이 教育者的 意識 전환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는 좋은 환경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學院들이 教育環境이 좀 좋지 못한 상태가 있고 꾸준한 改善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는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유능한 강사진을 확보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우선 學院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教育者的 立場에서 教育的인 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 營利追求만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자제라든가 轉換의 노력도 해야

겠고 또 저희들이 주고 있는 關係規定에 성실하게 좀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는 遵法精神 문제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 저희들이 多角的으로 이런 문제를 研究해서 자율적 운영방안을 檢討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孫馥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學院의 新規認可 登錄을 凍結할 容의는 없느냐 이렇게 첫 번째 물으셨습니다.

學院은 본래 學校 教育을 補完해서 생활교육, 직업교육, 여가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關係法規에서는 法定施設이나 또 設立基準을 갖추어서 學院 設立 認可申請을 해 올 경우 저희들이 전부 認可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學院이 社會教育 機關으로써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그 敎習의 대상이 되는 敎習 需要者와 與件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저희들 측면에서 行政的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가지고 認可를 제한할 수 있는 基準이 設定돼 있지 않느냐 하더라도 新規認可의 抑制나 登錄을 凍結한다는 문제는 현행 규정상 대단히 어렵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社會教育機關인 明知大學校 社會教育 大學院 오치선 敎授에게 研究用役을 드려 가지고 이것이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됩니다.

저희들이 資料가 입수되는 대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 검토해 가지고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적절한 수의 지역별 學院分布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改善할 계획입

니다.

끝으로 學院 受講料 規制에 대한 改善策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역시 學院 受講料調整問題는 현재 저희 主務官廳인 서울市教育廳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 調整問題는 委員님께서 아시다시피 經濟企劃院의 物價當局하고 事前協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저희들 法令上에서는 예를 들어서 學院의 受講料는 지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學院에서 申告된 金額은 충족토록 許容을 해야 되는데 다만 政府次元에서 지금 物價政策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이 統制, 規制되고 있다는 사항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受講料 調整現實化 問題는 현재 學院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解消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봐서 關係當局하고 계속 노력해서 이 문제가 解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報告드리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鄭沖熙; 管理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喆鎬 委員님이 質問하신 노후 책걸상 교체의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學生들이 쓰는 노후하거나 體位에 부적합한 책걸상 교체는 이미 教育環境 改善事業으로 작년도말까지 全量 교체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 동안 이 사업을 重點적으로 추진한 결과 授業環境을 一新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學校 形편이 나아졌습니다. 금년에는 자연 파손율과 추가교체 수요량을 감안해서 自體豫算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한 實績은 다음과 같습니다.

90年度에는 41億 4,900萬원을 들여서 20萬 400組를 교체했고 91年度에는 2億 6,500萬원을 들여서 약 1萬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0年度에 教育環境改善 완성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교체하였으나 이것은 限時的으로 終了되는 사업이 아님을 감안해서 비교적 책결상 교체 요구량이 많은 國民學校, 中學校에 대해서는 92年度부터 해당 教育廳에서 學校 실정에 맞게 豫算을 편성해서 중점 교체토록 하겠으며 高等學校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本廳에서 豫算을 확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 高等學校 教育體制 改編에 대한 계획과 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高等學校 卒業生の 대학진학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産業社會가 필요로 하는 優秀機能人力을 양성할 수 있도록 90년부터 95년까지 高等學校 교육체제를 개편하여 일반계 대 실업계 비율을 73:27에서 50:50으로 실업계 수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송과공고 등 3個 學校의 實業系高校와 職業學校 1個校를 신설했으며 實業系高等學校 學級을 11學級 증설하여 實業教育施設을 이미 확충하였으며 금년도에도 人文系 3個校의 工業系로의 개편 실업계 고교의 13學級 증설 또 직업과정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92學年度에는 일반계 대 실업계 비율을 69:31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실업계 受容施設을 확충하기 위하여 95年度까지 1,963億원이 소요되어 國庫支援을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特殊學教 지원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市에는 현재 國立 2個, 公立 1個, 私立 14個, 17個의 특

수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精神薄弱兒, 肢體不自由 등 障礙兒童 등의 教育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公納金을 징수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립특수학교에 대하여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90年度에 54億원으로 91年度에는 69億원을 지원하였으며, 90年度부터 92년까지 3個年에 걸쳐 15億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改築 補修 등 教育環境을 改善해 나갈 계획으로 90年度 5億 2,000萬원, 금년도 4億 8,000萬원을 지원하였으며, 92年度에 5億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特殊教育振興을 위하여 學校運營에 소요되는 경비를 公立學校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障礙學生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學 委員님께서 過密學級 및 2部制 授業現況과 그 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53名 이상인 過密學級이 127個校에 6,549學級이 있으며 2部制 수업을 하는 학교는 474학교에 1,218學級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學年 이상은 2部制 수업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러한 過密學級 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學級當 學生 受容目標를 96年度에 45名을 목표로 해서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2부제 수업은 92年度에 2학년에 1/3 이상, 93年度에 2학년에 2/3 이상, 94年度에는 1학년에 1/2 이상, 이런 계획으로 지금 解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過密學級을 완화하고 2部制 수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96年度까지 6,755億원을 투자하여 국민학교 61個校를 신설하고 452個 교실을 增築하여 국민학교의 教育與件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 答辯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모레 추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教育廳의 副教育監 이하 幹部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業務報告와 아울러 오늘 質疑 答辯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教育廳에서 오신 教育監 이하 幹部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場內騷亂)

○劉起鍾 委員; 委員長님! 諒解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教育廳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江南教育長이 오셨으니까 잠깐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죠. 提議합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權會榮; 아! 江南에서 오셨습니까? 말씀하세요.

○江南教育局長 金東然; 여러 委員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張精一委員님께서 경원중학교 인접학교용지가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취소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質問의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瑞草區 蠶院洞에 위치한 土地開發公社 소유인 高等學校 學校用地 約 3,847坪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허가한 일입니다. 그 주변 상황으로써는 경원중학교가 인접돼 있고 10層 정도의 한신아파트, 한양아파트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허가상황으로서는 신청자는 大韓在鄉 軍人會이고 그 신청내용은 가설 건축물 지상 2層, 234坪 골프연습장입니다. 許可 管所는 瑞草區廳입니다. 그 경위와 이

에 따른 저희 教育廳의 조치 상황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지난 2月 17日 瑞草區廳長이 저희 教育監님께 高等學校 學校用地內 골프연습장 設置審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月 23日 教育監께서 해당학교 用地에 대한 學校 建築 豫定은 93年 이후다 그리고 학교 保健法 저해 여부와 學生 教育環境 문제점에 관해서는 해당 教育廳인 江南 教育長과 협의하도록 하라는 그런 會報를 瑞草區廳長께 했습니다.

이에 따라 2月 26日 瑞草區廳長은 江南 教育長에게 學校保健法의 違背 여부와 教育環境 문제에 관한 審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學校 保健係長 實務者를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시키는 한편 學校長에게 學父母의 意見을 收斂하여 教育環境문제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提示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在鄉軍人會에서 저 보고 왜 학부모의 의견을 收斂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대단히 거센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江南地域에서는 흔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住民들의 住居環境 民願問題가 야기되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의 의견을 學校長 보고 收斂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學校長은 골프장연습장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학생들에게 育成種目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사치이고 또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騷音 여러 가지 이에 따르는 學生들의 주위산만, 그리고 많은 차량 왕래로 인한 交通安全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교육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報告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報告를 받아 가지고 瑞草區廳長에게 골프연

습장 설치는 學校保健法에 抵觸은 안 되나 學校長이 제시한 대로 教育環境 影響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許可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대책을 學校長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回報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저 教育長인 외람된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다면 학교인접 골프장 설치는 學校保健法에 違背되지는 않으나 張委員님 말씀대로 저 教育長 생각도 모두가 일하는 대낮 근무시간에 성인들이 여가활동으로 골프연습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學生들의 情緒面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法에 抵觸이 안 되니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다면 교육환경의 沮害要因의 문제를 학교환경 정화구역 관리책임자인 學校長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委員님들께 報告말씀드리는데는 나중에 學校長으로부터 口頭로 報告받은 일입니다마는 瑞草區廳에서는 저나 또는 學校長에게 그 후에 이렇다 할 서로 협의는 없었지만 瑞草區廳에서 許可할 적에 許可條件이 學校나 제가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조건부의 許可條件은 뭐냐 하면 우선 골프의 타점, 치는 데를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學校를 바라보고 이렇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햇빛이 남쪽에서 오니까 북쪽으로 치면 해가 보여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쪽으로 타점이 되도록 계획된 것을 북쪽이 타점이 되도록 해서 그 건물이 가리워지고 또 學校와 遮斷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리, 이격거리가 法的으로는 2m인데 6m로 확대해 가지고 綠地 造成을 해서 騒音과 可視 조건의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交通安全에 관해서도 駐車場을 철저히 정비해서 學生들의 交通安全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을 조건부로 瑞草區廳長이 허가했다는 말을 校長한테 통보했다는 것을 제가 報告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지역 住民의 民願이 야기돼서 공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과 在鄉軍人會와 瑞草區廳과 3자가 문제에 관한 조정을 協議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張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번 瑞草區廳長한테 가서 다시 한 번 재협의코자 합니다.

특히 張委員님께서 瑞草區 委員이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오늘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議事日程 변경에 따라서 계획된 答辯은 13日날 午前 10時로 變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써 終結을 하고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8時 03分 散會)

.....
(참조)

書面答辯書

(뒤에 실음)

○出席委員

權會榮 金相復 金仁雨 金熙健
孫馥 孫允準 劉起鍾 李汪烈
李鍾學 李喆鎬 張精一 趙貞順
曹相彩 李載震 朴善童

○專門委員

鄭永國

○出席公務員

市立大學校

總長 申弘

企劃室長 安斗淳

教務處長 李揆穆

事務局長 尹佑吉

學生處長 林相鶴

○出席公務員

市教育廳

副教育監 朴炳墉

初等教育局長 李容勳

中等教育局長 片光範

社會教育體育局長 鄭鶴謀

管理局長 鄭沖熙

江南教育廳教育監 金東然